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성서적 평화의 관점을 테마로 하는
순례길 조성 제안

-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를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스토리텔링학과

이 성 진

2017년 8월

성서적 평화의 관점을 테마로 하는 순례길
구성 제안

- 성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황 경 수

이 성 진

이 논문을 사회교육학(스토리텔링)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7 년 8월

이성진의 사회교육학(스토리텔링)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2017 년 8 月

Proposal for a Pilgrimage Route
based on “ St. Francis’ Peace Pray ”

Lee, Sung-Jin
(Supervised by Professor Kyung-Soo Hwang)

A thesis submitted in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cience Education (Storytelling).

2017 .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
.....
.....

.....
Date

Department of Storytelling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국문초록]

[Abstract]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2
II. 평화의 길에 대한 이론적 배경	4
1. 평화에 대한 정의	4
1) 언어에 따른 평화의 개념	4
2) 현대적 평화의 개념	7
(1) 소극적 평화이해	7
(2) 적극적 평화이해	9
3) 성서적 평화의 개념	10
2. 순례길에 대한 정의	13
1) 순례에 대한 정의	13
2) 길이 가지고 있는 함축적 의미	14
3) 순례길의 가치	14
3. 평화와 순례길의 상관성	15
1) 역사성에서 본 상관성	15
2) 심리적 상관성	17

Ⅲ. 기존 순례길의 현황과 분석	20
1. 순례길에 대한 고찰	20
1) 산티아고 순례길	20
2) 제주CBS의 제주 기독교 순례길	23
3) 천주교 제주교구의 제주 천주교 순례길	25
Ⅳ. 대정읍 지역을 바탕으로 한 평화의 순례길 스토리텔링	28
1. 대정지역의 스토리텔링 요소	28
1) 대정지역의 근현대사	28
2) 대정지역의 현재모습	29
3) 대정지역의 이야기 관심지점(POI) 설정	30
(1) 송악산	30
(2) 첫알오름	31
(3) 알뜨르 비행장	33
(4) 모슬포항	34
(5) 광선의숙(터)	36
(6) 모슬포교회	38
(7) 육군98병원(대정여고)	41
(8) 강병대교회	42
(9) 평화의 터	43
2. 성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를 통한 평화의 길 스토리텔링	44
3. 평화의 순례길 스토리텔링	47
1) 순례길 서사 형식 구조	47
2) 평화의 순례길 구성과 목상집 스토리라인 분석	51

3) 평화의 순례길 구성과 목상집 제작	55
V. 결 론	58
[참고문헌]	60
[부 록]	62

표 목 차

<표 1> ‘평화의 기도’와 대정지역 관심지점(POI)의 연결점	50
---	----

그림 목 차

<그림 1> 제주 기독교 순례길 지도	24
<그림 2> 제주 천주교 순례길 지도	25
<그림 3> 송악산 해안동굴 사진	31
<그림 4> 첫알오름 학살터 사진	32
<그림 5> 알뜨르 비행장 격납고 사진	33
<그림 6> 모슬포항 사진	35
<그림 7> 광선의숙(터) 사진	38
<그림 8> 모슬포교회 사진	40
<그림 9> 육군98병원 사진	41
<그림 10> 강병대교회 사진	43
<그림 11> 평화의 터 사진	44
<그림 12> 퍼스의 기호 삼원구조	48
<그림 13> 퍼스의 기호작용에 의한 문화콘텐츠의 의미작용	48
<그림 14> 평화의 순례길을 위한 목상집 스토리라인	51
<그림 15> 평화의 순례길 목상집 구성	53
<그림 16> 평화의 순례길 지도	54
<그림 17> 평화의 순례길 목상집 : 좌면	56
<그림 18> 평화의 순례길 목상집 : 우면	57

【국문초록】

성서적 평화의 관점을 테마로 하는 순례길 조성 연구
- 성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를 중심으로 -

이 성 진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스토리텔링학과

지도교수 황 경 수

제주를 ‘평화의 섬’이라고 부른다. ‘평화의 섬’을 매일 걷고 있는 우리에게서 정작 평화를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혹시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어떤 평화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체험될 수 있는지 추상적인 개념만 우리에게 있을 뿐이다. 본 연구는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 제주에 있는 역사유적지를 도보로 순례하는 것을 통하여 평화를 체험하고 사유할 수 있도록 평화의 순례길 조성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려 한다. 첫 번째 장에서는 두 가지의 핵심개념인 평화와 순례를 정의하려 한다. 평화가 어떤 의미인지를 검토하고, 순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지를 살펴보려 한다. 두 번째 장에서는 스페인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순례길인 산티아고 순례길과 제주에 있는 기독교 순례길, 천주교 순례길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세 번째 장에서는 제주에서도 근현대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있는 대정으로 한

정하고, 지역의 POI를 중심으로 역사이야기를 추출하였다. 전쟁의 상흔이 있는 송악산, 첫알오름, 알뜨르비행장, 모슬포항을 전반부의 내용으로 삼았다. 후반부에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광선의숙, 모슬포교회, 육군98병원, 강병대교회를 통하여 후반부의 내용으로 삼았다.

이 전반부와 후반부의 POI를 연결하여 순례길과 자발적 가난과 순례자의 삶을 살았던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를 연결하여 재구성하였다. 기반으로 하여 재구성하였다. 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적인 기도문을 재구성하여 연결하였다. 이 둘은 서로 상호작용을 통하여 추측과 해석을 하고, 그 추측과 해석이 우리의 자아성찰과 평화에 대한 개념을 확장할 수 있는 도구로 쓰여 졌다. 형태적으로는 순례(걷기)를 통하여 스스로 육체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였으며, 대정지역의 POI를 중심으로 순례길을 제안하였다. 이것을 통해 대정지역의 전쟁의 상흔과 4·3 학살의 흔적과 전쟁과 수탈의 상징이 미움과 상처, 어둠, 슬픔으로 공감되고, 항일교육과 자수강연과 병원이 위로와 이해, 사랑으로 치유되게 하였으며, 최초의 군인교회와 평화의 상징을 통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줌으로, 자기를 버림으로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다짐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평화와 우리의 삶, 지역의 역사와 상호작용의 효율성을 위해 목상집 발간을 제안하였으며, 그를 위해 스토리라인을 만들고 구조를 설정하였으며, 내용을 구성하였고 예시를 제안하였다. 결론에서는 이 연구의 활용 방안과 결과물의 기대를 제시하였다.

【Abstract】

Proposal for a Pilgrimage Route
based on “ St. Francis’ Peace Pray ”

Lee, Sung-Jin

Department of Storytelling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 Kyung-Soo Hwang

Jeju Island is called the ‘Island of Peace’. Although walking the ‘Island of Peace’ every day, we do not have experience of peace. Peace sounds like an abstract issue, but in fact it is highly concrete. In order to give concrete expression to an abstract idea, peace, this paper aims to propose a pilgrimage route to experience and think about peace while walking on historical sites in Jeju.

This paper is organize as follows. The first section clarifies two key terms: peace and pilgrimage. I examines the concept of peace, and investigates what pilgrimage means to us. The second section is exemplifying the pilgrmage route with a few illustrations; *the Camino de Santiago*, or St.James Way, the world’s most famous walking trail in Spain, the Protestant pilgrimage route in Jeju, the Catholic pilgrimage route in Jeju.

The third section unearths a new pilgrimage route around Daejeong, where there are many modern and cultural heritage sites in Jeju. I choose one story from the POI history stories in the area. The contents of the first half are Songak Mt. Seotal Oreum, Aldreu Airfield, and Moseulpo Port, where there are signs of war. The second half of the story is the Gwangseoneuisook, Moseulpo Church, 98 Army Hospital, and Gangbyeongdae Church, which served as healing and recovery.

After digging pilgrimage route around Daejeong, I invite 'Prayer of Peace' written by St. Francis to the new pilgrimage route in Jeju. St. Francis abandoned his riches and lived the life of a pilgrim.. I wish I could figure out how to use 'Prayer of Peace' for pilgrimage route, because I expect that the two bring together an amazing synergy.

Both of them interact with each other to make guesses and interpretations. These guesses and interpretations were used as an extension of our self - reflection and concept of peace. Through the walk of the pilgrimage, I expect that pilgrims on their way to Jeju remember the scars of war and the tragedy of 4.3 sparked the Jeju Island, and mourn for all those who died in World War II and the 4.3 genocide.

Finally, we proposed the publication of a book for meditation as a tool for our lives to communicate effectively in peace and local history. To make the book, I made a story line, set up the structure, composed the contents and suggested an example. In conclusion, the application of this study and the expected effect on the result are presented.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순례길은 기독교의 발상지인 예루살렘 성지를 다녀오는 것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무슬림에 점령되어 유럽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순례의 길이 막혀버렸다. 거기에 교황은 기독교상징물을 만들어 놓고 그 길을 걸으며 묵상하는 것으로 그 길을 대체할 수 있도록 열어주었다. 많은 정치적, 역사적 배경이 존재하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만들어진 곳이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이며, 이것을 모티브로 제주올레길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그 올레길을 모티브로 제주CBS에서는 기독교 제주 순례길을, 천주교제주교구에서는 천주교 제주 순례길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순례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다 몇 가지 한계도 발견하였다. 먼저 기독교 제주 순례길은 기독교역사유적지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어 제주 기독교사를 순례하기에 좋으나 POI사이의 거리가 길어 때로는 지루함이 느껴지기도 한다. 다음으로 천주교 제주 순례길은 선인들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순례길과 비슷하나 새미은총의 동산에 14처소 묵상의 길을 통해 그 의미를 더했다.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은 종교와 관계없이 많은 이들이 찾는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으나 시간과 경비, 지역 등의 현실적인 이유들로 많은 이들이 열망하나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동반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제주의 기독교 순례길과 천주교 순례길이 산티아고 순례길과 구별되는 한계점은 은 세상과의 소통이 목적이 아닌 종교 역사유적지 탐방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종교가 자신의 종교 안에 머물러 있고,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독자의 길을 걷고 있다.

여기에서 자신들의 사상과 역사에 간혀 있는 기독교 순례길이 아니라 대안적

인 형태의 기독교 순례길을 제안하려 한다. 그를 위해 평화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며, 평화에 대한 개념의 확장과 연구를 통해 성서적 평화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확립할 것이다. 그리고 걷기에 대한 의미를 고찰하고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그 효용성을 알아보려한다. 그리고 평화와 걷기를 함께할 수 있는 순례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 그래서 ‘평화의 섬’ 제주에서 평화의 관점으로 순례의 방법을 통해 종교를 벗어나 지역의 역사유적지를 목격함을 통해서 해석하고, 그 해석을 기독교역사 유적지를 통해 재해석함으로써 자신을 성찰하고 진정한 평화를 발견하여 세상과 소통 할 수 있는 순례길 조성을 제안하려 한다.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본 연구는 1장에서 연구배경과 목적, 내용과 범위에 대해서 서술할 것이다. 2장에서는 노르웨이 평화학자 요한 갈통(Johan Galtung)의 개념을 빌려 최근 논의 되는 평화의 개념을 정의하고, 성서적 평화의 관점을 고찰할 것이다. 순례길에 대한 정의를 할 것이며, 길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알아보려 한다. 이어 평화와 순례길의 상관성에 대하여 역사적인 관점과 심리적인 관점에서 찾아보려 한다. 3장에서는 선행연구단계로 기존의 순례길의 현황과 구성, 가치를 연구함을 통해 진단을 하려 한다. 4장에서는 대정읍 지역을 바탕으로 한 평화의 순례길 스토리텔링을 하려 한다. 이를 위하여 지리적 공간으로서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을 제시하려 한다. 대정읍은 한국과 제주의 근현대사 속에서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는 지역이며, 동시에 치유와 회복의 흔적이 모순되어 남아있는 곳이다. 이 지역의 근현대사를 연구 분석함을 통해서 관심지역(Point of Interest : 이하 ‘POI’)을 설정하고, POI의 역사를 연구하여 주요 내용을 추출하고, 추출 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순례길 코스를 설계하려 한다. 또한 탁발순례자¹⁾였던 성(聖) 프란시스를 연구하여 평화와 순례의 의미를 찾아내

고, 주요한 관점으로 ‘평화의 기도’를 제시할 것이다. 후에 대정읍 지역의 POI와 ‘평화의 기도’의 연결점을 위해서 퍼스(Charles Sanders Peirce)의 문화기호학과 성녀 아빌라의 테레사²⁾가 제시한 기도의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평화의 기도’를 중심으로 한 성서적 평화의 순례길을 제안하며, 묵상집을 제안하여 순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1) 13세기에 청빈과 엄격한 규율을 바탕으로 노동과 구걸로 수도 생활을 하던 단체. 탁발수도회는 중세 수도회가 세상과 격리되어 회사 받은 헌금으로 부유하게 지내며 타락하는 것에 반발하여 온 세상을 수도원으로 여기며 세상에서 선교하고 영혼들을 돌볼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대표적인 탁발수도회는 1) 1210년경 프란체스코가 창설한 프란체스코 수도회와 2) 1216년 도미니쿠스가 창설한 도미니쿠스 수도회가 있다.

- 가스펠서브(2013), 『교회용어사전』, 생명의 말씀사, p.660

2) 스페인의 아빌라에서 1515년 태어나 1582년까지 살았으며, 그녀의 본명은 테레사 데 세페다이 아우마다(Teresa de Cepeda y Ahumada)이다. 그녀의 핵심저서는 세권이 있는데, 그 중에 ‘내명의 성’은 기독교 전통에서 기도에 대해 쓴 최초의 책이다.

- 리처드 포스터·게일비비, 김명희·양혜원 역 (2009), 『영성을 살다』, lvp, p.428

II. 평화의 길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평화에 대한 정의

평화는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이상이다. 하지만 문화와 종교, 시대, 지위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에 다양한 언어에 따른 문화적 구분을 통하여 평화의 개념을 살펴보고, 노르웨이의 평화학자인 요한 갈통(Johan Galtung)이 제시한 두 가지 평화의 개념인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의 개념을 중심으로 최근에 논의 되고 있는 현대적 평화의 개념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본 논문의 중심인 성서적 평화의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순례길을 걸으며 추구해야 할 ‘평화’에 대한 개념을 제안할 것이다.

1) 언어에 따른 평화의 개념

‘평화’는 각 문화권별로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말(한국어)에서 ‘평화’(平和)는 ‘평온하고 화목함’, ‘전쟁이 없이 세상이 평온함’을 의미한다.³⁾

그리스어로 평화는 ‘에이레네’(eirene)이다. 에이레네는 시대별로 개념의 차이가 있다. 먼저 영웅들이 지배했던 호모시대에는 인간을 육체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신체적인 아름다움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호머시대에는 영웅이 인간의 이상적인 모습이었으며, 영웅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었다. 그러나 철인(哲人)들의 시대가 되자 그 의미는 변화되었다. 변화된 에이레네는 ‘식(食)·주(住)·의(衣)⁴⁾

3) 두산동아 사전편찬실 (1998), 『동아 새국어사전』, 두산동아, p.2374

4)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는 우리가 ‘의·식·주’로 순서로 표현하는 것을 ‘식·주·의’ 순으로 표현하였다. 생존에 필요한 기본 요건에 대하여 문화적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 충족된 상태'를 뜻하였다. 이런 에이레네를 이루기 위해 고대 그리스에서는 도시(폴리스)들 상호간에 전쟁이 정지한 일시적인 상태를 평화로 인지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안정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심신의 안녕과 물질적·정신적으로 충족한 상태를 추구하였다. 철인들의 시대 이후에는 그 의미에 윤리적이고 위생적인 개념을 포함시켰다. 그래서 에이레네는 인간이 개인, 국가의 시민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 인간의 전인이 평온한 상태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평화’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은 ‘peace’인데, peace는 어원적으로 라틴어 pax를 그 기원으로 한다. 팍스는 ‘로마의 평화’(Pax Romana)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힘의 균형에 의해 유지되는 평정상태이다.⁵⁾ 뵁스트(1994)에 의하면 “로마 제국 시대에 정치력과 군사력에 의한 평정 상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였다. 실제로 그 당시에 모든 로마의 시민들은 강도를 만나거나 노예가 되거나,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제국의 한쪽 끝에서 다른 끝으로 여행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였다.”⁶⁾고 말한다. 이것은 로마황제와 원로원이 정치적으로 원했던 평화이며, 군단의 투입을 통해 군사적으로 획득되고 보장된 평화이다. 즉, 로마의 평화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폭력으로 다른 폭력들을 관리하는 평화였다. 따라서 팍스는 본질적으로 상류계층으로부터 규정되고 권력의 중심으로부터 설정된 평화였다. 뵁스트(1994)는 이러한 팍스는 “로마시민에게는 승리의 평화를 의미하였지만, 로마의 군사력에 의해 정복당한 피정복민들에게는 굴욕의 평화였다.”고 말한다. ⁷⁾

어원적인 개념을 기반으로 할 때 팍스의 기원은 전쟁과 반대되는 개념이며, 정치적인 평화의 개념이다. 이러한 평화가 가능하려면 역사적으로는 항상 ‘제국’을 성립해야 했다. 이런 의미에서 팍스는 ‘제국의 평화’로 간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팍스처럼 총·칼에 의해 다스려지는 평화는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평화도 무

5) Wengst, K. 정지련 옮김 (1994), 『로마의 평화 : 예수와 초대 그리스도교의 평화인식과 경험』, 한국신학연구소, p.26

6) Wengst, K. 정지련 옮김 (1994), 앞의 책, p.27 요약

7) Wengst, K. 정지련 옮김 (1994), 앞의 책, pp.19~37 요약

너지게 된다. 팩스로 이해되는 평화가 현대사회에서는 냉전 상태나 냉전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평화의 상태에서 발견할 수 있다. 미국은 자국 내에서 ‘자유·평화’의 모습과 자국 외에서 ‘자유·평화’의 모습에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자국 내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국가’인 것처럼 많은 것을 누리지만, 자국 외에서는 자유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한 지배를 누림을 통해 다른 국가들을 굴욕시키고 종속시켰다. 미국에게 있어서는 ‘평화’가 이루어져 있지만 타국, 특히 제3세계에 있어서는 부정의와 종속적인 자유를 강요함으로써 평화롭지 못한 세상을 강제하고 있다.⁸⁾

히브리어로 평화는 ‘shalom’(shalom)이다. shalom의 주도권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자신들이 믿는 신(神)에게 있다. 성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을 주요한 평화의 개념으로 정의한다. 그래서 신의 뜻에 따르는 일이라면, 그 일이 전쟁이라도 평화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shalom은 구약성서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신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이 깨어진 상태가 신과 화목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결과로 보았다. 그래서 구약성서에서의 shalom은 구원의 또 다른 실현적인 형태이다. 이런 정의에 이어서 신약성서에서는 예수가 전한 복음과 연관된 개념으로 평화를 이해했다. 예수는 산상수훈을 시작하며 shalom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태복음 5:9). 팔복의 마지막 메시지로 shalom을 언급했으며, shalom의 도구로 쓰이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했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성서에서는 공의로운 신이 이뤄주시는 평안함으로 평화를 강조하였고, 신약성서에서는 구원으로 가는 도구요 토대로서 평화가 강조되었다.⁹⁾

앞에서 논의한 에이레네와 팩스는 사람이 생존하는 환경과 조건으로서 평화를 뜻한다면, shalom은 생존의 조건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조건으로서의 평화까지 확장된 의미를 가진다. shalom은 사람과 신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시작되어 이웃 공동체와 주변의 타인과의 관계, 더 깊이는 자기 자신과의 관

8) 박보영(2005), 「평화교육의 이론과 과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p.92 요약

9) 박보영(2005), 앞의 책, p.93~94 요약

계를 통하여 존재적 평화의 개념을 뜻한다.

살림의 대립적 개념은 ‘악’으로서 외부적 악은 외부적 관계와의 평화가 깨진 전쟁과 다툼이라면, 내면적 악은 내면적 평화가 깨진 불안, 공포, 범죄와 경악의 상태를 의미한다. 박종화(1995)는 “살림이 의미하는 평화의 개념은 생존의 조건과 존재의 상태를 포괄적으로 의미하며, 이러한 살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의’가 밑바탕이 되어야하고, 이 땅에서의 모든 관계가 ‘창조질서의 보전’이라는 과제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살림의 의미는 세계교회협의회(WCC)가 진행하고 있는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라는 기독교계의 실천운동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살림 사상을 ‘신약성서’의 관점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구체적 표현이다”¹⁰⁾라고 보았다.

2) 현대적 평화의 개념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평화는 시대성과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시대의 평화에 대해 다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요한 갈통이 분류한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와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를 중심으로 널리 통용되는 현대의 평화 개념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1) 소극적 평화 이해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는 직접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직접적인 폭력은 우리가 쉽게 폭력이라고 정의하는 종류의 폭력형태로, 인간이나 다른 생명체에게 물리적으로 상처 입히거나 죽인다. 이런 직접적 폭력은 전쟁, 테러, 범죄, 신체에 대한 폭행 등과 같이 구체적인 폭력이며, 이와 같은 폭력으로부터

10) 박종화 (1995), 『기독교와 평화 교육 : 평화, 평화교육의 종교적 이해』, 내일을 여는 책, p.38

터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가 소극적 의미의 평화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통적 평화 이론’¹¹⁾에서는 이와 같이 평화를 소극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후에 전쟁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 평화에 대하여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활동이 이뤄졌다. 이 시기(1930-1940년대)에는 국가주의, 인종차별주의, 파시즘 등과 같은 집단적 편견의 결과로 평화가 무너졌던 경험들에 대한 반성으로 이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분석되었다.

유네스코 헌장 서문도 “전쟁은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평화를 지키는 것도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유네스코는 편견을 극복하는 것이 민족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상호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라 보았다. 이런 맥락에서 편견문제들에 대한 심리학적인 조사 연구가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이루어졌다.

윤응진(2001)에 의하면 “1950년대 이후 평화 연구는 ‘갈등해결연구’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으며, ‘평화연구’라는 명칭은 ‘갈등연구’보다 후에 사용되기 시작하였다.”¹²⁾고 말한다. 그리고 “1950년대 중반 이후 ‘갈등연구’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동·서 양진영의 갈등 속에서 핵전쟁의 위협이 높아지면서 인류의 존속을 위한 평화연구가 절실하다는 인식의 고조와 더불어 성장한 것이다. 사회내부의 갈등 잠재성의 분석에서도 주로 갈등완화, 갈등억제, 갈등조정을 통한 갈등해결 등의 관념들이 학문계를 지배하였다.”¹³⁾고 한다. 이 무렵의 연구과제는 냉전체제의 심리학적, 이데올로기적 요인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 평화연구는 미국과 소련의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냉전의 대립 속에서 핵전쟁의 회피에 초점이 맞추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결과적으로 양국 간에 이뤄진 기존 질서를 유지시키는 도구로 사용될 뿐이었다. 특히 갈등은 냉전으로부터 기인한 국제·국내의 정치적인 것이었다. 그럼에도 갈등을 비정치적인 다툼으

11) 평화의 개념을 직접적인 폭력의 제거와 같이 소극적으로 이해하는 태도에 대하여 1960년대 후반부터 등장한 비판적 평화학자들은 평화를 사회구조의 문제와 관련시켜 이해할 것을 강조하였고, 자신들의 연구경향을 그 이전 세대와 구별하기 위하여 소극적 방식의 평화이해를 ‘전통적’ 평화 이해라고 지칭하게 되었다.

12) 윤응진 (2001), 『기독교 평화교육론』, 한신대학교 출판부, p.81

13) 윤응진 (2001), 앞의 책, pp.81-82

로 인식함으로 실질적인 해결 및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냉전으로 인한 동서진영의 갈등에만 관심을 가졌다. 그로인해서 산업화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제3세계 국가들의 빈부 격차 등의 문제들은 논의에서 제한됨으로 그 한계를 드러내었다.

이런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 평화는 전쟁의 부재가 그 출발점이었지만, 폭력적 갈등이 사라진 상태가 반드시 평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2) 적극적 평화 이해

위와 같은 논의는 기존에 미국을 중심으로 했던 기존의 평화연구에 대한 한계와 핵전쟁의 회피에만 초점을 맞추는 체제 지향적 평화연구에 비판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사회변화에 대해 갈등은 소극적 평화와 상대적인 개념으로 적극적 평화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는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structural violence)과 문화적 폭력(cultural violence)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직접적 폭력은 물리적인 특징을 띠는 폭력이라면, 구조적 폭력은 직접적 폭력만큼 확실하게 폭력이라고 식별되지 않는다. 구조적 폭력은 사회의 구조에 의하여 개인이나 집단에게 자신의 창의력과 잠재력을 실현할 기회가 차단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즉,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가해자나 피해자가 없고, 물리적인 폭력의 장면들을 목격할 수는 없지만, 기아, 절대적 빈곤, 빈부의 격차, 사회의 부패, 정치적 억압, 차별과 소외, 생태계 파괴로 인한 생존조건 악화와 같이 구조적 요인으로 인하여 개인이나 집단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이다.¹⁴⁾

문화적 폭력은 특정한 문화적 가르침 내에 존재하는 폭력으로 종교와 사상, 언

14) 윤응진 (2001), 앞의 책, p.92

어와 예술, 과학과 법, 대중 매체와 교육의 내부에 존재하는 폭력이다. 문화적 폭력은 상징적인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경우 그 폭력성을 인식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특징이 있다. 문화적 폭력은 그 가르침을 통하여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한다.¹⁵⁾

갈통은 폭력의 구조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는데, 폭력의 시작은 주로 문화적 폭력에서 하지만 구조적 폭력을 경유하여 직접적 폭력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구조적 폭력은 서로 영향을 주었는데, 하나의 구조적 폭력이 다른 구조적 폭력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기 때문에 그 구조를 변경시킴으로써 폭력의 근원을 제거하거나 축소시켜 나갈 수 있다.

소극적 평화는 전쟁·직접적 폭력의 제거와 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적극적 평화는 그 개념이 더욱 확장되어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의식과 사회 정의의 실현을 중심으로 하는 개념이다. 이와 같이 갈통이 제시한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의 개념은 폭력과 평화의 개념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그 이해를 확장하였다는데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갈통의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서 살펴보면, 평화에 대한 원리를 하나 더 발견할 수 있다. 소극적 평화는 현재의 상태 유지를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폭력만 일어나지 않으면 ‘영구적 평화’라는 개념도 설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적극적 평화는 이상적인 미래를 그 지향점으로 삼기에 완전하게 달성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적극적 평화의 개념에서는 ‘영구적 평화’의 의미를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항상 상대적인 ‘보다 평화적인’ 상태를 지향하는 즉 ‘역동적’ 평화 개념을 설정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소극적 평화는 일정한 ‘상태’로, 적극적 평화는 끊임없는 문제를 제기함으로 역동적 변화해 가는 ‘과정’으로 인식할 수 있겠다.

3) 성서적 평화의 개념

15) 윤응진 (2001), 앞의 책, p.94

성서에서의 평화는 ‘shalom’이다. shalom에 대한 히브리 언어적인 의미는 위에서 살펴 보았다. 성서적 평화인 shalom을 갈통의 기준으로 분류하면 소극적 평화보다 적극적인 평화에 가깝다. shalom은 구약성서에서 구심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shalom에 대한 상태는 구약성서 곳곳에 나타나 있는데 가장 잘 드러난 본문이 이사야서 11장 1절-9절이다. 다음은 구약성서의 이사야서에 나타난 shalom의 이미지다.

1.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2. 그의 위에 여호와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3.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4.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5.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6.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7.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엮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8.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떼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9.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 이사야서 11장 1~9절¹⁶⁾

이사야서에서 묘사하는 살롬은 강자와 약자가 공존하는 세상이다. 이리가 어린 양과 뛰어놀고, 젓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세상이 살롬의 세상이다. 여기서의 약육강식이나 적자생존의 논리로 설명하지 않는다. 살롬은 일련의 모든 자연의 질서를 초월한 신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화이기 때문이다. 이런 살롬의 세상은 인간의 능력으로 만들어 갈 수 없는 이상적인 세계이다. 이런 살롬의 세상은 전제가 있다. 신의 정의와 심판이 이미 끝났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다툼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그래서 구약성서의 평화는 정의를 전제하는 평화이다. 또한 악에 대한 징벌과 심판을 포함하는 평화이다.

이런 살롬의 평화가 신약성서로 가면 사랑이라는 옷을 입게 된다. 신약에서 평화는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살롬이 아닌 ‘에이레네’로 기록되었지만, 이 에이레네는 살롬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스어적인 의미¹⁷⁾의 에이레네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신약성서의 에이레네는 그리스어적 의미의 에이레네보다는 살롬의 의미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신약성서의 시대에서 평화는 더 큰 의미를 갖게 된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거치면서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 예수가 부활하여 처음 전한 인사말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지어다”(누가복음24장 36절)인데, 이 말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가 함께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신약성서를 바탕으로 한 신앙적인 이해에서 평화는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개념이 추가되었다.

평화는 근본적으로 타자와의 관계의 개념이지만, 특히 기독교에서는 온 인류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와 더불어 신의 관계를 통해 최종적으로 증명되는

16) 대한성서공회 편 (2007), 『성경전서』, 대한성서공회, 이사야 11:1~9

17) 그리스어적인 의미의 ‘에이레네’는 ‘1) 언어에 따른 평화의 개념’부분의 논의를 참고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적 성서적 이해에서 평화를 볼 때, 인간은 다른 모든 관계보다 우선하여 신과의 관계가 평화로울 때 비로소 평화로울 수 있다.

2. 순례길에 대한 정의

1) 순례에 대한 정의

순례는 ‘떠돌아다니다’라는 뜻의 라틴어(peregrinatio)에서 유래되었다. 기존의 제도와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유랑활동을 통하여 신과의 영적(靈的)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순례는 자유롭지만 동시에 나름의 기준과 목적성이 있어야 한다. 이 기준과 목적성이 종교의 기원이 되는 지역이나, 신앙의 선조들이 합당한 삶을 살았던 역사적인 자리들이다.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지역들을 순례하는 것이 ‘성지순례’이다. ‘성지순례의 사전적인 의미는 종교상의 의무 관념이나 가호, 은총을 구할 목적으로 성지 또는 본산 소재지 등을 순차로 찾아 참배하는 일’¹⁸⁾을 뜻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성지는 종교적인 유적이 있는 곳으로 기독교는 예루살렘(Jerusalem), 불교는 니르바나(Nirvana), 이슬람교는 메카(Mecca), 힌두교는 갠지스(Ganges)강 근처에 있는 바라나시(Varanasi)가 그들의 성지이다.

제주에는 100년이 조금 넘는 짧은 역사 가운데 종교상의 유적이 있는 성지는 아니지만 1908년 기독교가 전래 된 후 전래자인 이기풍 목사에 의해 처음 세워진 제주성내교회(제주시 삼도2동 소재), 모슬포교회(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등과 우리나라 최초의 군인교회인 강병대교회(서귀포시 대정읍 소재)등의 근·현대 기독교 역사유적지가 있다. 이러한 기독교 역사유적지 순례는 단순한 여행을 넘어서 한국의 초기 기독교의 영적인 유산을 더듬어 가면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사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순례를 통해 신과의 영적인 대화를 함으로 자아를 성찰하고 지친 영혼을 회복하며 삶의 의미를

18) 이희성 (2001),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2049쪽

찾는 종교적인 행위이다.

2) 길이 가지고 있는 함축적 의미

어느 날부터 우리는 길을 갈 때 걷는 것보다 타는 것이 익숙해진 세상이 되었다. 동시에 역설적으로 길을 걷는 것이 유행이 되었다. 그런데 이런 역설은 생활과 삶에서 걷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장소와 풍광을 찾아서 길을 걷는 것이 유행이 된 것이다. 이렇게 길을 걷는 것에서 길은 여정으로 우리의 인생길로 비유된다. 길은 은유이고 상징으로 많이 표현된다. 길의 여러 가지 내포적 함의를 지닌다. 우리말로 ‘길’은 해결 방법으로 ‘길이 열린다.’는 표현을 쓰며, 행위의 규범으로는 ‘길이 아니면 가지마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또한 신약성서에서 예수는 자신을 지칭하는 의미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요한복음 14:6)하고 사용하였다.

한자로는 길을 뜻하는 도(道)는 ‘득도(得道)하다’, ‘수도(修道)하다’와 같이 ‘진리’ 혹은 ‘뜻’을 내포하기도 한다. ‘나는 길을 잃었다.’,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가?’하는 자의식을 통해 길을 인생의 여행길로 생각하기도 한다. 또한 ‘길을 걷는 것’에서 ‘걷는 것’이란 육체적으로는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운동과 치료의 목적을 기반으로 한다. 동시에 걷는 것은 생활 혹은 생계의 방법으로서가 아닌 ‘걷는 여행’으로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동시에 걷는 여행을 ‘길’의 은유적 표현들과 결합시킴으로써 우리가 동참하고 따르고 있음을 깨닫게 하고 동질화시킴을 통해 자기 확인의 가치를 갖게 한다.

3) 순례길의 가치

위에서 살펴본 여러 의미의 ‘길’을 ‘걷는 것’이 단순한 경험을 넘어 ‘순례’와 결

함 할 때 가치가 있다.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성지를 찾아가는 순례길을 여행함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자 하였다. 오늘날의 순례자들도 모든 것이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하는 현대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위안과 깨달음을 얻고자한다. 이들은 순례길이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종교적 인물의 사연을 통해 영감을 얻으려 한다. 순례길을 순례하는 것은 개인의 슬픔과 상처와 복잡한 짐을 털 수 있고, 스스로 행하는 고통을 이겨냄을 통해 극복하게 한다. 이러한 변화는 순례 이전의 삶에 비해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삶을 살게 하며, 자신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조화롭게 만드는 삶의 양식이다. Boers(2007)는 “순례는 종교색이 짙고 헌신을 요구하는 영적활동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만나리라는 목적의식과 종착지가 있다. 도전의 연속이며 순례자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장기적이고 심오한 여정이다. 영적 시야를 넓히기 위한 영성훈련이다”¹⁹⁾ 고 말한다. ‘영적’이란 말은 종교적인 활동의 한 영역이다. 단순히 삶의 활동을 넘어서 초월적 타자에게 나아가는 보다 적극적인 우리의 모습이며, 내재되어 있는 초월적 자아를 향하여는 끊임없는 자아성찰이며, 자기고뇌의 활동이다. 이런 긴 여정을 이끌고 가는 힘은 진리를 만날 수 있다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임경미(2014)는 순례길 여행에 대해 “길을 따라 걸으며 종교, 문화, 역사 유물 유적지, 자연생태자원 등을 체험하고 감상하며 학습하는 걷기여행이다. 순례길 걷기여행은 깨달음의 길이요 학습을 경험하는 길이다.”²⁰⁾ 라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걷기는 단순한 걷는 행위가 아니라 깨닫고, 경험하며, 학습하는 또 다른 행동양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평화와 순례길의 상관성

19) Boers, A.P., 유지훈 역 (2008), 『걸어서 길이 되는 곳, 산티아고』, 살림, p.281

20) 임경미 (2014), 「산티아고 순례길 여행 체험에 대한 평생학습적 의미」, 숭실대학교 석사논문, p.25

1) 역사성에서 본 상관성

비폭력주의 운동으로 유명한 간디는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는 방법으로 바다까지 걸어가는 <소금행진>을 했다. 간디는 바다까지 걸어가면서 직접 소금을 만들기를 통해서 영국의 '세제법'에 대항하기 위하여 비폭력 저항을 했다. 이런 의미에서 걷기는 약자가 강자에게 변화를 이끌어 내는 특별한 도구가 되었으며 비폭력의 가장 보편적인 행위가 되었다.

다른 예로는 미국의 한 여성이 간디에게 영향을 받아 1953년 평화를 위해 길을 떠났다. 그녀는 당시 미국과 국제 정치에서 이슈가 되어있는 냉전과 군비 경쟁, 참혹했던 한국전쟁, 그리고 전쟁일반에 대하여 반론을 펼쳤다. 그녀의 걷기는 순례를 모티브로 시작하였는데, 전통적인 순례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과 치료 혹은 자신의 목적을 위한 행위였다면 그녀는 순례의 의미를 전쟁과 폭력과 증오가 세상을 파괴하는 전염병과 같은 사회현상에 맞서는 것이라 여겼다. 순례를 통한 대화의 대상이 신이 아니라 대중으로 변화된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신의 영역에 자신의 의견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대중이 듣게 하기 위해 걷기를 했다. 그녀의 걷기는 자신의 신념을 증명하려고 했던 행위였다. 또한 그것은 자신의 신념뿐 아니라 힘을 보여주는 행위이며, 영적인 권능에 하는 호소가 아니라 현세의 권력에 요구하는 것이다.

1970년에 들어서 순례의 형식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중에 하나가 모금을 위한 방법으로 걷기를 사용한 것인데, 이것이 “오래 걷기 대회”이다. 이런 대회는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는데, 체육대회나 집회가 아닌 애매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대회는 수많은 광고로 점철되었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며 이어지고 있다. 이런 기금 모금을 위한 걷기 행사는 순례의 형식을 통하지만 그 대상이 신에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을 사람들에게 금전을 요구함으로 해결하는 현실적인 행위로 변형되었다. 이런 대회에서 걷기가 아직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대부분의 대회의 목적이 질병을 이기기 위하거나, 혹은 수술비 마련을 위한 방법

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이다. 나의 건강을 통해 다른 사람의 질병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이 목적으로 작용하였다.

20세기에 들어서 자동차의 대중화는 걷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그 예로 도시가 설계될 때에는 자동차가 우선으로 고려대상이 되며, 인도와 횡단보도는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런 이유로 현대인들은 지역주의를 벗어나 원거리 소통 및 업무를 수행한다. 게다가 현대인들은 이제 이동을 생각하면 먼저 ‘탈 것’을 떠올리고 의존하게 된다. 이로 인해 산책자의 사적 통찰의 공간이 사라졌고, 오히려 걷는 사람을 특별하게 인식하는 상황이 오게 되었다. 레베카 솔닛(2003)은 “이전과 비교해 확실히 현대에 들어서 인간은 더 많이 앉아 있게 되고 덜 걷는다. 굳이 걷지 않더라도 먼 거리를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장치는 무궁하다. 특히 자동차는 보행자를 승객으로 바꿔놓았고, 고속도로와 근교 도시 등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사회질서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사회질서가 공간, 시간, 자유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걷기를 바꿔놓았다.”²¹⁾고 말한다. 그럼에도 걷기는 특별한 의미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아무리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고 자동차의 의존적이어도 걷기는 인간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걷기는 인간이 영속적으로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좁은 골목, 평평하지 않은 길, 산지 등의 자동차로 이동하는 한계가 있는 곳은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이며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걷기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걷기는 때로는 평화적인 시위의 도구로 때로는 속도전으로 흘러가는 현대사회에서 느낌을 경험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특별한 표현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걷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이전의 순례에서도 보였던 것처럼 의미성이 중요하며, 순례(걷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중요한 도구라는 것이다.

21) 레베카 솔닛, 김정아 역 (2003), 『걷기의 역사』, 민음사, p.382

2) 심리적 상관성

순례는 전통적으로 수백 년 동안 이어진 구도의 방법이다. 이는 목적지를 정하고 두 발로 그 목적지까지 걸어감을 통하여 여러 가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한다. 여기에서 목적지는 지리적인 장소이기도 하고 물리적인 장소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순례자가 추구하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순례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는 발은 종종 가장 낮은 곳으로 인식 된다. 자신을 겸허히 낮추고 비천하게 여겨지는 땅위를 직접 걸음을 통하여 신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순례자는 길 위에서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에서 미묘한 경계를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순례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영성이지만 그 목적을 향해 나가는 방법이 가장 물질적인 방법인 걷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순례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만나는 합일점이기도 하고, 육체와 영혼이 만나는 지점이 되기도 한다. 순례는 길 위에서 믿음과 행동을 결합시키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결합시킨다.

순례는 목적지가 있는 탐색의 시간이다. 순례에서의 목적은 자기변화도 하나의 기능으로 작용하며 이 때문에 여정 자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순례에서 여정과 도착은 공생 관계를 맺고 있다. 목적지까지 걸어간다는 것은 정당한 대가를 얻는다는 뜻이 된다. 여행 중에 닥치는 고난을 감내하고 변화를 겪으면서 순례는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영혼의 목적지를 향하여 물리적으로 움직인다. 순례가 없었다면 영혼의 목적지에 닿는 것은 대단히 어려웠을 것이다. 어떤 먼 곳을 향해 고초를 겪으며 길을 가는 사람의 이미지는 인간의 의미를 보여주는 가장 매력적이고 보편적인 이미지다. 여기서 그려지는 개인은 광활한 세계의 미미하고 고독한 존재로서, 체력과 의지력에 의존할 뿐이다. 레베카 솔닛(2003)은 “순례의 여정은 닿을 수 있는 목적지에 도착함으로써 영혼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빛난다. 순례자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냈으며, 이를 통해 순례자 자신이 여행과 변화의 이야기로 이루어진 종교의 일부가 되었다.”²²⁾고 말한다.

22) 레베카 솔닛, 김정아 역 (2003), 앞의 책, p.83

순례자의 걷기가 중요한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모든 행위가 사유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걸음은 되돌리거나 도피할 수 없는 길이다. 순례자는 길을 떠나며 세상 속에서 자기의 경험과 삶의 복잡함을 뒤로하고, 걸어가는 다른 사람들 속에서 자기 자신도 걸어가는 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순례자는 심리적인 안정을 누리고, 복잡한 세상에서 분리되며,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안정감을 갖게 된다. 이것이 순례가 우리에게 주는 감정의 정화이고 이유이고 목적이다.

Ⅲ. 기존 순례길의 현황과 분석

1. 순례길에 대한 고찰

1) 산티아고 순례길

카미노(Camino)는 길, 산티아고(Santiago)는 성 야고보(saint diego)라는 의미이다. 이는 프랑스의 생장 피에 드 포르(Saint Jean Pied de port)를 출발지로 해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Santiago de Compostella)에 이르는 순례길이다.²³⁾

알렉산더 3세(Alexander) 교황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과 이탈리아의 로마, 산티아고 길을 세계의 3대 성지 순례지로 선포하였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성 야고보 성인이 선교의 목적으로 걸었던 선교의 길이다. 카미노(Camino)는 ‘길’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원래 이름인 ‘카미노 데 산티아고’(Camino de Santiago)는 ‘산티아고 가는 길’인 것이다. 산티아고(Santiago)는 예수의 열두 제자 중 한 명인 야고보(야곱)이며, 그는 사도 요한의 형이다. 영어로는 그를 성(聖) 제임스(Saint. James)라 하고, 프랑스어로는 생 자끄(Saint Jacques)라고 하며, 스페인어로는 산티아고 (Santiago)라고 한다.²⁴⁾

산티아고는 예수가 순교한 후, 스페인의 북서부 갈리시아 지방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AD 44년에 헤롯 왕 아그리파 1세에 의해 순교 당했다. 그의 죽음에 대해 사도행전 12장 1~2절에는 ‘그때에 헤롯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고 적혀 있다. 제자들은 그의 유해를 들로 만든 배에 실어 스페인의 북서쪽으로 보냈는데, 이 배가 갈리시아 지방의 파드론(Padron)에 도착했다고 한다. 파드

23) 윤태일 (2012), 『까미노 데 산티아고 여행 안내서』, 다빛, pp.10-12

24) 최정수 (2012), 『산티아고 그 유혹의 길』, 한승미디어, p.284

론은 산티아고의 남서쪽에 있다. 이 때 그의 유해를 바다에서 물으로 끌어올렸던 사람과 말의 몸에 조개가 붙어 있어서 그 이후에 조개가 순례자의 상징이 되었다. 이 후 오랜 세월이 흐른 813년 펠라요(Pelayo)라는 목동이 하늘에서 빛나는 별을 보고 들판에 갔다가 한 유골을 발견하였는데, 이를 파드론 지방의 주교인 메오 도미로가 교황 칼릭스투스 2세에게 보고하였다. 교황청은 여러 검증을 거쳐 이 유골을 산티아고의 유골로 인정하였다. 그 후 아스투리아의 왕 알폰소 2세가 이곳을 방문하여 세 채의 성당을 건축하고, 성 야고보를 스페인의 수호성인으로 선언하였다.²⁵⁾

유골이 발견된 곳을 ‘캄푸스 스텔라에’(Campus Stellae)라고 하는데, 이는 ‘별이 비친 들판’이라는 뜻이다. 이곳이 현재의 콤포스텔라(Compostela)인데, 여기서 산티아고의 원래 이름이었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Santiago de Compostela)가 유래되었다. 718년부터 1492년까지 이슬람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어서 가톨릭에서는 이슬람 침략에 대항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그리고 스페인 사람들이 이교도로 개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산티아고의 순례를 장려하였다. 1189년 교황 알렉산더 3세는 마침내 산티아고를 예루살렘, 로마와 함께 가톨릭 성지로 선포하였다. 또한 교황은 ‘산티아고 성인의 축일인 7월 25일이 일요일이 되는 해는 특별히 성스러운 해이므로 이 해에 산티아고를 순례하는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를 완전히 속죄 받고, 그 이외의 해에 순례하는 사람은 죄의 절반을 속죄 받는다.’는 칙령을 발표했다.²⁶⁾

이로 인해 산티아고 순례길은 10~11세기에 많은 순례자들이 증가하여 12세기에는 예루살렘, 로마와 함께 가장 큰 규모의 중세 순례길이 되었다. 11~14세기는 야고보 순례의 전성기였다. 어떤 해는 40만 명이 넘게 순례에 참여했다. 그리고 이 순례길을 통해 중세 유럽의 한쪽에서는 놀라운 영적인 활기와 각성이 일어났다.

현재의 산티아고 길은 중세 이후 그 수가 줄어들기는 했으나 ‘산티아고 길’의

25) 최정수, (2012), 앞의 책, p.285

26) 최정수, (2012), 앞의 책, p.286

인기는 현대까지 이어왔다. 산티아고 순례여행은 종교개혁이후 줄어들기 시작해 18세기에는 순례자가 가장 적었다. 산티아고 순례길 여행이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부터다. 1982년 교황 요한바오로 2세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를 방문하면서 다시 가톨릭신자들에게 산티아고 순례길 순례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또한 프랑스길은 1987년 유럽연합에 의해 유럽문화의 길로 선포되었고, 1993년에는 스페인의 순례길을 포함하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유럽연합(EU)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유럽통합의 상징으로 내세우면서 순례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²⁷⁾

민슬기(2011)는 “산티아고 순례자들이 다시 증가하면서 중세 순례자 호스피스 전통에 따라 길옆에 순례자들의 쉼터와 음식을 제공하기 위한 무료 호스텔과 도보여행자나 등산가를 위한 산장인 레퓨지오(refugio)가 증가하였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전한 즐거움을 위해 산티아고 순례길은 최근 세계 각국으로부터 더 많은 기관과 화가들을 수용하였다. 그래서 일부 가이드북은 산티아고 순례길이 과거의 종교적 성지순례에서 현재는 실외의 육체적 고통의 순례로 바뀌고 있다”²⁸⁾고 기술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순례가 종교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현재의 산티아고 길은 종교성이 덜 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임경미(2014)도 그의 논문에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목적이 종교적 동기에서 비종교적 동기로 증가하고 있다.”²⁹⁾는 것을 밝히고 있다. 순례는 오랜 세월 종교인들의 진리 발견과 자아 발견의 실현의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범위가 확장되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변형되었다.

그럼에도 산티아고 길은 순례길의 원형으로 그 규모와 역사성, 의미론적으로 순례자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다. 다만 거리와 기간과 시간의 제약으로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것이 그 한계이다.

27) 박용진 (2007), 『순례와 여행-「산티아고 순례 안내서」를 통해 본 중세의 순례』, 동국사학회, p.53

28) 민슬기 (2011), 「스페인 산티아고길 도보순례의 의미와 소비」,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3

29) 임경미 (2014), 앞의 책, p.18

2) 제주CBS의 제주 기독교 순례길

제주CBS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관광공사와 함께 2012년부터 제주 기독교 순례길 조성사업을 진행해 왔다. 현재는 1코스-‘순종의 길’, 2코스-‘순교의 길’, 3코스-‘사명의 길’, 4코스-‘화해의 길’이 있다.

제주에서의 기독교는 1908년에 제주로 입도한 개신교 첫 번째 선교사 이기풍 목사로 그 역사가 시작된다. 한국교회사를 보면 최초의 장로교 목사는 1907년 평양에서 열린 독노회 중에 목사 안수를 받은 평양신학교 졸업생 7명이며, 그 중 한 명이 제주 선교사로 파송된 이기풍 목사이다. 이기풍 목사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사는 지금의 제주시에서 성내교회를 개척하고 선교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자료에 의하면 “이기풍 목사는 서부 해안 마을에서 그의 입도 1년 전인 1907년 봄에 목사 없이 기도모임을 했다.”³⁰⁾는 소식을 듣고 1908년 제주 서쪽 해안 마을의 금성교회를 찾아가 예배를 인도하였다. 그 영향으로 제주의 서쪽 해안인 금성, 한림, 협재, 두모, 용수, 고산, 모슬포, 중문, 법환 등에 기독교의 유적지들이 밀집해 있다. 이런 이유로 제주CBS가 조성한 4개의 코스가 모두 서쪽에 치우쳐 있다.

1코스는 애월읍 금성교회에서 시작하여 이도종 목사, 조봉호 선생 생가 일대를 지나 한림 해안 길과 한림교회 일대, 그리고 협재교회에 이르는 14.2km의 길이다. 이 길에는 처음예배를 시작했던 금성교회로 시작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옥사한 애국지사 조봉호 선생이 살던 집, 제주출신 첫 목사로 4·3의 비극 속에서 순교한 이도종 목사의 생가가 위치하고 있다.

2코스는 협재교회에서 출발하여 조수교회, 저청교회, 청수성결교회, 평화박물관을 거쳐서 이도종 목사 순교터에 이르는 23km의 길이다. 이 길은 1921년에 설립된 협재교회에서 시작되어, 4·3에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건져 준 조남수 목사의 고향교회인 조수교회가 있는 길이다. 그리고 1코스에서 만났던 이도종 목사가 4·3을 겪으며 순교했던 순교터가 있는 그 길이 마지막이다.

30) 박용규 (2008), 『제주 기독교회사』, 생명의 말씀사, p.152



<그림 1> 제주 기독교 순례길 지도³¹⁾

3코스는 2코스의 중간지점인 조수교회에서 시작하여 순례자의 교회, 용수교회를 거쳐 조남수 목사 공덕비에 이르는 21.4km의 길이다. 이 길에는 특별히 2010년에 지어진 순례자의 교회가 있다. 기독교 역사 유물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로 알려져 있는 교회이다. 순례자들이 자신의 작음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되는 교회다.

마지막 4코스는 이도종 목사 순교터에서 시작하여, 대정교회와 강병대교회를 거쳐 모슬포교회, 그리고 조남수 목사 공덕비에 이르는 11.3km의 길이다. 이 길에는 특별히 우리나라 최초의 군인교회인 강병대교회가 있으며, 100년이 넘은 모슬포교회가 있다. 모슬포교회에는 교회 내에 자체적으로 만든 작은 제주기독교 역사박물관도 있어 그 자료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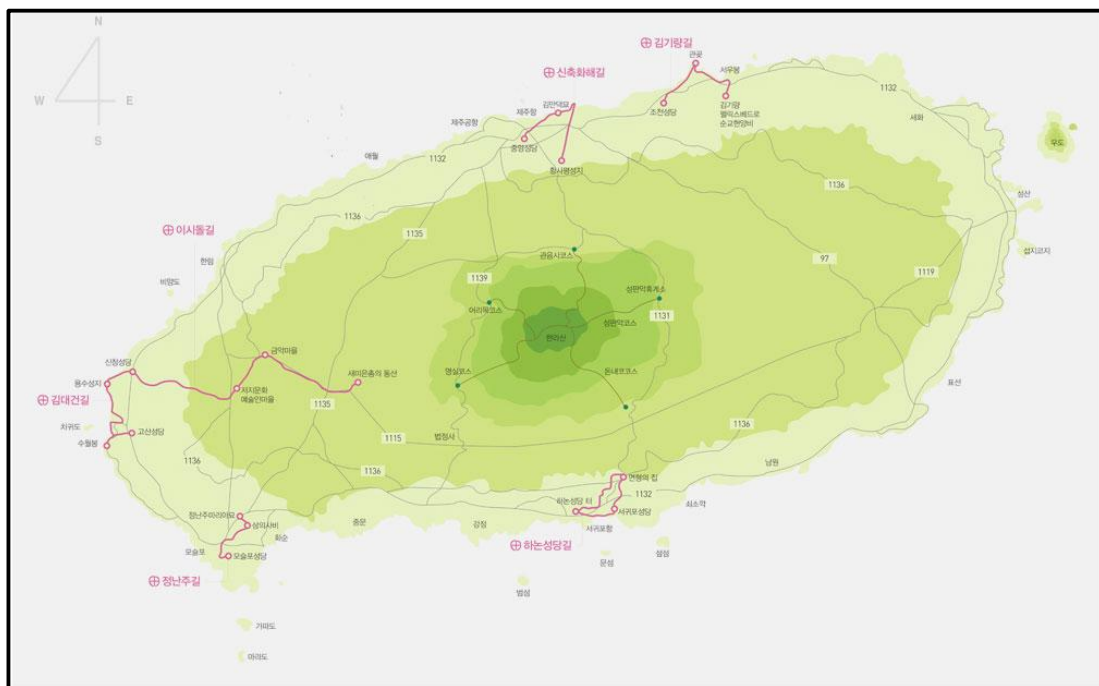
제주CBS가 조성한 기독교 순례길은 제주의 서쪽에 위치한 기독교 역사 유적지를 중심으로 4가지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역사 유적지 사이의 길은 아름다운 오름과 해안 길을 포함하고 있다. 물론 제주의 첫 번째 교회인 성내교

31) 제주 CBS, “제주 기독교 순례길 리플릿”, 제주 CBS 홈페이지, 2017.04.01.
<http://cbspodcast.com/podcast/jejuCBS/road.html>

회는 제주시내(제주시 삼도2동)에 있지만, 이 순례길을 통해 100여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제주 초기의 개신교 교회 여러 곳을 한 번에 둘러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3코스와 4코스의 경우 역사유적지 사이의 간격이 멀어 지루함이 있기도 하다.

3) 천주교제주교구의 제주 천주교 순례길

천주교 순례길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가 함께 2011년부터 조성하였으며, 2012년 ‘김대건 길’을 개통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7년 ‘이시돌 길’까지 6개의 코스가 있다.



<그림 2> 제주 천주교 순례길 지도³²⁾

32) 천주교제주교구, “천주교 제주 순례길 지도”, 천주교 순례길 홈페이지, 2017.04.01., http://peacejeju.net/bbs/content.php?co_id=course

가장 먼저 조성된 ‘김대건 길’(빛의 길)은 고산 성당에서 시작하여 수월봉 인근과 자구내포구를 지나 김대건 신부가 표류 중에 도착했던 용수 성지를 둘러본 다음 신창 성당에 이르는 12.6km의 순례길이다. 이 길에는 1845년 8월에 김대건 신부가 상해에서 사제 서품을 받은 후 ‘라파엘호’를 타고 서해 바다를 통해 귀국하는 길에 풍랑을 만나 일행 13명과 함께 표류 중에 도착한 곳이다. 이곳에는 고국에서의 첫 미사를 봉헌한 감격어린 장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성(聖) 김대건 신부 제주표착 기념성당과 기념관이 건립되어 있고, 전문가의 고증을 거쳐 복원한 라파엘호를 전시하고 있으며, 김대건 신부가 간직한 ‘기적의 성모상본’에 있던 성모상이 야외에 건립되어 있다.

두 번째 순례길은 ‘하논성당 길’(환희의 길)로 2013년에 조성되었으며, 서귀포 성당에서 시작하여 서귀포 신앙의 모태인 하논성당 터와 홍로성당이 있었던 면형의 집을 거쳐서 다시 서귀포 성당으로 돌아오는 ‘시작과 끝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는 10.6km의 성찰의 길이다. 이 길은 아름다움을 지닌 천지연 산책로를 지나서 ‘살아있는 자연사박물관’이라 불리는 하논분화구와 서귀포지역의 모태성당인 하논성당 터를 만나게 되고, 솜반내와 흑담소나무길, 후박나무 가로수길 등을 거쳐 서귀포 성당으로 돌아오는 길목에 면형의 집과 이중섭거리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세 번째 순례길은 ‘김기량 길’(영광의 길)로 2014년에 조성되었으며, 조천성당을 시작으로 관곶과 함덕마을을 거쳐 복자 김기량 펠리스베드로의 순교현양비에 이르는 9.3km의 길로 아름다운 제주의 해안도로와 함께 한다. 관곶 주변의 방사탑을 비롯하여 원형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블터, 세월의 흔적을 느끼게 하는 환해장성 등이 있으며, 조선시대 제주의 관문이었던 조천포구 인근에는 조천진성과 연복정이 자리 잡고 있다. 조천성당으로 가는 길에 만나게 되는 비석거리와 와가 등도 제주문화의 단면을 볼 수 있는 좋은 흔적들이다.

네 번째 순례길은 ‘정난주 길’(고통의 길)로 2015년에 조성되었으며, 대정성지인 정난주묘에서 시작해 모슬포성당에 이르는 13.8km의 길이다. 1801년 신유박해 당시 제주에 유배되어 살다가 생애를 마친 정난주 마리아는 다산 정약용의

조카이자 ‘백서사건’으로 순교한 황사영의 부인이다. 이 묘역을 지나 대정성터를 거쳐서 추사 김정희의 유배지에 이르면, 대정 출신의 장두 이재수와 강우백, 오대현의 넋을 기리는 삼의사비가 있다. 이 길은 이규석 ‘삼부자 순교지묘’를 지나 모슬포성당에서 마무리 된다.

다섯 번째 순례길은 ‘신축화해길’(화해의 길)로 2016년에 조성되었으며, 1901년 신축교안 때 희생된 신자들이 묻혀 있는 황사평 성지를 지나 화북포구와 곤을동, 별도천과 관덕정을 거쳐 중앙성당에 이르는 12.6km의 길이다. 이 길은 당시 제주에서 희생된 천주교 신자들이 겪어야 했던 신앙의 궤적을 거슬러 가는 순례길이다. 이 길은 ‘고통’의 역사를 넘어 ‘화해’로 가는 길이다.

여섯 번째 순례길은 ‘이시돌 길’(은총의 길)로 2017년에 조성되며, 세미은총의 동산(이시돌)에서 조수공소를 거쳐 신창성당에 이르는 18.2km의 순례길이다. 특별히 세미은총의 동산(이시돌)은 복음서를 기반으로 만든 예수의 일생을 동상으로 제작하여 세워놓았으며, 십자가의 14처는 순례자들이 깊이 있는 기도와 묵상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제주 천주교 순례길은 기독교보다 오래된 역사만큼 다양한 유적지를 가지고 있다. 지역의 분포도 제주 서부지역에 밀집해 있는 기독교 순례길과 달리 제주의 북쪽과 남쪽 서쪽에 두루 분포되어 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순례길의 경로에 종교유적지 뿐 아니라 지질학적 특징이 있는 지역과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지역들을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열려있는 천주교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IV. 대정읍 지역을 바탕으로 한 평화의 순례길 스토리텔링

1. 대정지역의 스토리텔링 요소

1) 대정지역의 근현대사

제주도의 근현대사는 아픔과 슬픔의 역사이며, 전쟁의 역사이다. 특히 대정지역은 그 한 가운데에 서 있었다. 1943년 협재교회를 시작으로 1944년 서귀포 교회를 거쳐 1947년 7월부터 1960년 2월까지 모슬포교회에서 시무했던 조남수 목사가 4·3의 진실을 알리고자 저술한 4·3진상(眞相)을 보면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1940년대 일본제국주의의 단말마적인 최후발악은 한반도 전역에서 극도에 달했지만 그 중에서 지리적 여건이 숙명적인 제주섬은 그 어느 곳보다도 더 참혹할 수밖에 없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어부지리를 거둔 일본제국주의자들은 극동에 눈을 돌리고 제주도에 군사기지를 구축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중략) 비행장과 토치카의 건설, 군용도로의 시설, 보수, 특공대를 위한 항만시설에 희생당하였다. 모슬포 ‘알뜨르’와 제주 ‘정뜨르’에는 소위 ‘함바’라는 수용소를 수 10채씩 지어놓고 한곳에 백 명 내지 이백 명씩 합숙시키고, 2개월 3개월 반으로 연중교대하면서 전도민을 우마와 같이 희생시켰다. 굶주리고, 매 맞고, 희생에 못 이겨 골병들고, 죽어서 나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였으나, 신원할 곳이 없었다. 청년들은 학병으로, 장년들은 징용으로 끌려가서 만주벌판, 남양군도, 북해도 탄광등지에서 김승과 같이 희사를 당하다가 쓰러지고 적군의 총알받이로 주고, 행방불

명이 된 사람이 부지기수이다.³³⁾

이와 같이 당시의 제주의 많은 인력이 전쟁을 위해서 동원되었다. 직접적으로 전쟁에 투입된 인력뿐 아니라 전쟁 준비를 위한 노역에도 많이 투입되었다. 특히, 태평양전쟁 말기에 괌이 함락(1944년 8월 10일)되고 필리핀(1944년 10월 26일)이 미국에 의해 함락되자, 일본은 패전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실감하고, 연합군의 일본 본토 상륙을 저지할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그 루트를 7개로 설정하였는데, 그 중에서 ‘결7호작전’³⁴⁾이 제주에 해당하는 작전이다. 이 작전이 설정된 후 더 높은 노역을 요구받았다. 제주 전체가 외세의 각축장으로, 일본의 수탈로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지만, 그중에서 대정지역은 첫알오름의 고사포동굴지지를 비롯하여 해안동굴 진지와 알뜨르 비행장, 비행기 격납고, 지하병커, 모슬봉 군사시설 등의 많은 군사시설이 있었기에 그 강도가 더했다. 그 만큼 대정은 제주에서도 가장 아픔이 많은 지역이다.

2) 대정지역의 현재모습

지금의 대정지역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지역이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대한민국이 눈부신 발전을 이룬 것처럼, 대정지역도 새로운 건물과 발전을 거듭해왔다. 특히 2010년대에 들어 제주로 이주하는 이주민들이 늘어나면서 현대적인 이미지의 식당을 비롯한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다. 그럼에도 대정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역사 유물을 유지하고 있다. 송악산에는 여전히 가이텐³⁵⁾용 진지동굴이 있으며, 알뜨르 비행장에는 만들어졌던 20개의 격납고 중에 19개가 남아있다. 그리고 고사포진지와 일본군 지휘소 자리 등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후에 한국전

33) 조남수 (1988), 『4·3진상』, 도서출판 월간 관광제주, p.27~28

34) 이영권 (2005), 『새로쓰는 제주사』, ㈜휴머니스트 출판그룹, p.331

35) 비행기를 사용한 자살 특공대가 ‘가미가제’라면, ‘인간어뢰’의 형태로 소형 보트에 어뢰와 폭탄을 실어 미군 함대를 격침하려 했던 해상 자살 특공대가 가이텐이다.

쟁에서 사용되었던 제1육군훈련소의 유적과 지금은 대정여고의 실습실로 사용되고 있는 육군98병원의 흔적이 남아있으며, 최초로 세워진 강병대교회도 자리하고 있다. 종교시설로는 1908년에 세워진 모슬포교회 등의 개신교회와 1954년에 세워진 모슬포성당이 자리하고 있다.

3) 대정지역 이야기 관심지점(POI) 설정

(1) 송악산

제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의 한 곳이며,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이 송악산이다. 지질학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려 한다. 태평양 전쟁 말기인 1944년 8월 10에 괌이 함락되었다. 이어 10월 26일에 필리핀이 함락되고 일본은 패전을 앞두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 때 일본은 천황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연합군의 일본 본토 상륙을 저지하려 하였다. 이를 대비하여 길목을 차단하기 위한 작전을 수립하였고, 이것이 결호(決號)작전이다. 일본군은 이 결호 작전을 결1호, 결2호... 결7호로 7개의 루트를 설정하였다. 그 중에 결7호가 압호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그 중에서 ‘결7호작전’이 제주와 관련한 작전이었다. 이 작전은 미군이 규슈 남부로 상륙해 섬을 통과하여 동경으로 진격할 것을 예상한 작전이었다. 이를 위해 미군은 제주도를 먼저 확보해야만 했다. 그리고 제주도를 거점으로 규슈로 상륙하는 것이 용이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일본군은 하늘에 가미가제(神風)를 두었다면, 제주바다에는 가이텐(回天)을 만들었다. 인간어뢰처럼 폭탄을 실은 소형보트를 숨겨놓고 미군함대가 나타나면, 미군 군함에 부딪혀 자폭하는 자살특공대였다. 일본군은 이 가이텐을 숨겨놓기 위해 송악산에 해안 동굴을 팠다. 실제로 미군 상륙 저지 전투는 제주 해안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 작업을 위해 강제로 동원된 한국인의 고초는 지독했다. 규정된 동원 노무자의 나이는 본래 16세부터 50세까지였다. 그러나 이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고, 마을로

인원이 할당되면 칠순 노인도 동원 될 수밖에 없었다.³⁶⁾

아름다움과 화려함속에 이런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품고 있는 곳이 바로 송악산이다.



<그림 3> 송악산 해안동굴

(2) 첫알오름

송악산에서 대정읍으로 걸음을 걸으며, 알뜨르 비행장 옆에 첫알오름이 있다. 첫알오름은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1947년 3·1집회사건과 4·3사건을 거치면서 구속되었다가 풀려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비검속이 이루어졌다. 현재 대정읍 상모리에 위치한 대정읍민관은 일제 식민지 시대 절간고구마 보관 창고였다. 그 창고가 예비검속자들의 수감 장소였다. 당시 창고는 잇대어 2동이 있었는데 두 곳에는 수감된 사람들로 항상 가득 찼다. 이곳에 수감된 이들은 1950년 8월 20일[음력 7월 7일] 새벽 4~5시경 첫알오름에서 처형되었다.³⁷⁾

첫알오름 학살터는 일본군이 1944년 말부터 대정읍 ‘알뜨르’ 지역을 군사요새화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폭탄 창고 터이다. 당시 일본군은 야트막한 첫알오름의 내부를 파내어 폭탄 창고 터로 사용했으며, 폭탄 창고 터가 있는 오름의 정상

36) 이영권 (2005), 앞의 책, pp.330~336

37) 제주4·3연구소 (1993), 『4·3장정 6』, 나라출판, p.64

부에는 두 개의 고각포진지를 구축했다. 이 폭탄 창고 터는 일제가 패망하면서 제주도에 진주한 미군에 의해 폭파됐다. 이때 오름의 절반이 함몰되면서 큰 구덩이가 만들어졌는데 이 구덩이에서 학살이 이루어졌다. 학살이 시간 간격을 두며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기 때문에 암매장 구덩이도 두 개가 만들어졌다. 처형된 후 7년 동안 희생자의 시신은 그대로 방치되다가 1957년 여름경에 유가족들이 모여 모금한 돈으로 사계리 공동묘지 앞에 묘지를 구입하고 이장하여 담장을 두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3년 뒤에 ‘백조일손지묘’라고 적힌 비석을 세우고 비석 뒷면에 희생자 명단을 새겨 넣었다.³⁸⁾



<그림 4> 첫알오름 학살터

학살터의 보존을 위해 2002년 백조일손유족회 중심으로 ‘학살터 매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매입을 추진했고, 2005년 제주 4·3 연구소의 ‘4·3 유적 종합정비 및 유해발굴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제주도 주관으로 학살터 정비 사업이 이루어졌다.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정비 사업에 의해 부지매입과 함께 위령제단[추모비·상석·향로·병풍석·내력비]설치, 추모의 길 조성, 학살터 재현시설 완공, 주차장·추모정 준공 등이 이루어졌다.³⁹⁾

38) 손재운 (2009), 『모슬포교회 100년사』, 한국기독교장로회 모슬포교회, p.264

39) 제주4·3연구소 (1993), 앞의 책, p.65

(3) 알뜨르 비행장

알뜨르는 ‘아래 별판’이라는 뜻을 가진 비행장이다. 알뜨르의 너른 별판은 일제 때 비행장이 있던 자리로 제주도 북쪽, 지금 제주국제공항으로 쓰이는 정뜨르 비행장과 함께 대표적인 일제의 군사시설이다. 1920년대 중반부터 모슬포 지역의 주민들을 동원하여 활주로를 비롯한 비행기 격납고와 탄약고 등을 10년에 걸쳐 세웠는데, 후에 다시 한 번 더 확장하였다.

이곳에는 프로펠러 비행기부터 다양한 종류의 군용기들이 사용했던 활주로와 그 주변에 남아 있는 엄체호(掩體壕), 비행장 수비대의 고각포(高角砲)발사대, 통신 시설을 비롯한 각종 지하호와 병커 등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송악산 해안가의 특공정 기지, 송악산 외륜의 지하호까지 포함하면 당시 일본 해군이 조성했던 시설들의 대부분이 한 데 모여 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⁴⁰⁾



<그림 5> 알뜨르 비행장 격납고

이 비행장은 1933년도에 처음 불시착륙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할 때만 해도 6만평 규모에 지나지 않았다. 해군항공대가 주둔하는 정식 항공기지로서가

40) 조성윤 (2012), 「알뜨르 비행장 : 일본 해군의 제주도 항공기지 건설과정」, 탐라문화 41권, pp.397-398

아니라, 중국과의 전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중간 기착지였다. 그러나 1937년 중일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일본 해군은 적극적으로 이 비행장을 활용하기로 작정하고, 증설계획을 세운다. 이 과정에서는 토지 매입이 불과 한 달 반 사이에 모두 완료될 만큼 시급하게 적극적으로 진행된다. 규모는 14만평을 넓혀 모두 20만평 규모가 되었다. 그런데 증설 공사가 채 진행되기도 전에 제주도 알뜨르 비행장은 중국 남경 등 중요 도시를 폭격하는, 이른바 도양 폭격의 중심 기지가 된다. 알뜨르 비행장은 이렇게 폭격기지로 집중 활용되다가, 1938년 이후 전선이 확대되면서 대부분의 폭격기가 중국의 항공기지로 이동하면서 한가해졌다. 하지만 그 이후 알뜨르 항공기지에는 오무라 항공연습대가 주둔하고, 확장 공사도 계속되었다. 한편 태평양전쟁이 터지고 나서 알뜨르 비행장은 다시 중요성을 인정받아, 또 다시 확장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20만평의 부지에 세웠던 항공 기지를 60만평 규모를 더해서 다시 늘린, 모두 합쳐 80만평의 엄청나게 넓은 규모로 확장을 계획한 것이다. 알뜨르 비행장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오무라 항공기지의 규모가 80만평이었다. 제주도 알뜨르 항공기지를 일본 내에서도 가장 중요한 항공기지와 같은 규모로 키우겠다는 것은 태평양전쟁에서 점차로 커져가던 항공전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일본 해군이 제주도를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으로 파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⁴¹⁾ 격납고는 폭격에 견디기 위해 단단하게 만들어서 지금도 20여개의 격납고 중에 19개가 남아 있다.

(4) 모슬포항

알뜨르 비행장에서 대정읍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바다 쪽으로 모슬포 항이 자리 잡고 있다. 모슬포는 현재의 상하모리 일대를 포괄하는 지명이다. 남제주문화원(2006)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모슬포는 예부터 ‘모슬개’, 또는 ‘모실개’로 불리었으며 ‘모슬’은 모래의 제주어인 ‘모살’에서 변한 것이고, ‘개’는 포구를 뜻하는

41) 조성윤 (2012), 앞의 책, p.431~432

포(浦)로, 모슬은 한자음을 빌어 모슬(募瑟)로 표기한 것이다.”⁴²⁾고 기록하고 있다. 박용후(1990)도 “육당 최담선도 ‘모슬개’는 ‘모살개(沙浦)’에서 온 것이라고 하였다. ‘모슬개’라는 이름은 마을이 이루어지자 마을 이름으로 굳어지고 한자로 표기하여 ‘모슬포리(募瑟浦里)’라고 하였으며 포(浦)를 줄여 ‘모슬리(募瑟里)’로 한 것이다.”⁴³⁾로 기록한다. 역사적으로는 1510년에 중종실록에 모슬포라는 지명이 처음 등장하였으며, 이후 1530년(중종 25년) 신동국여지승람, 1601(선조 34년) 남사록에도 모슬포라는 지명이 나와 있다. 후에 대정현과 대정군, 대정면을 거쳐 지금의 대정면이 되었다.



<그림 6> 모슬포항

모슬포는 제주도의 최남단 지역으로 중국과 가까운 위치에 있고, 태평양에 연결해 있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최적의 군사요충지였다. 모슬포는 이러한 지리적 조건 외에 지형적으로도 군사시설을 설치하기에 적합하였다.

42) 남제주문화원 (2006), 『남제주의 문화유산』, 남제주문화원, p.140

43) 박용후 (1990), 『최남의 항도 모슬포』, 도서출판 제주문화, p.72

제주4·3연구소(1993)에서는 이유에 대해 “바다와 인접한 모슬포 앞뜨르는 넓고 광활하여 활주로 건설에 적합하였고, 모슬포항과 가까운 화순항은 수심이 깊고 자연포구를 형성하고 있어서 해군기지가 들어서기에는 최적지였다.”⁴⁴⁾고 평가하고 있다.

전쟁의 말기로 가면서 제주에는 군병력, 노동력의 증가와 그에 따른 물자와 식량의 부족현상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때문에 당시에 지휘부는 제주 도민을 소개시키려고 하였다. 동시에 제주로 귀환하려는 주민도 저지하려고 하였다. 또한 1918년부터 오사카와 정기항로가 개설되어 있었던 모슬포항을 통해 많은 도민들이 돈벌이를 위해 오사카로 가는 일이 많았다. 게다가 일본군의 『기밀작전일지』를 보면 “오사카-제주-목포항 선박을 이용하여 다수의 이재자(離災者-여자 아이를 주로 해서)들이 내지로부터 매회 천 수백 명, 목포로부터(매회 2~3백 명)제주도로 귀환하고 있음. 본도로부터 노인, 어린아이의 본토방면에 대해 피난에 관해서는 별도로 고려해야하며, 우선 이재자의 입도를 저지할 수 있도록 처치 바람”⁴⁵⁾ 이라고 나와 있다. 이런 여러 정황으로 모슬포항은 매우 활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활기는 기분 좋은 활기가 아니라 반대로 나라를 잃은 설움이 경제적인 이유로 고향을 떠나는 이유이며, 전쟁에 동원된 수탈과 고통이 고향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되었고, 그 통로로 모슬포항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광선의숙(터)

모슬포항에서 대정읍내로 들어오면, 지금의 모슬포제일교회 앞에 위치한 ‘하모 3리 복지회관’을 볼 수 있다. 이 자리는 모슬포교회가 1920년에 개설한 광선의숙(光鮮義塾)이 있던 자리다. 모슬포교회 100년사⁴⁶⁾에는 광선의숙에 대하여 다음과

44) 제주4·3연구소 (1993), 앞의 책, p.101

45) 김원복 (2008),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 제주도에 구축된 일본군 진지에 관한 연구:모슬포 지역을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석사 논문, p.66, 재인용

46) 손재운 (2009), 앞의 책

같이 기록하고 있다.

1910년대에 들어 보통교육과 신교육이 실시되면서 제주도에서도 교육의 대중화와 집단화가 싹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당시 제주도 내에는 제주보통학교(1907년개교), 정의보통학교(1909년개교), 대정보통학교(1911년개교) 등 공립보통학교 3개소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3·1 운동 후에 일어난 민중의 교육에 대한 광적인 열망에 부흥하고자 모슬포교회는 1920년 7월에 교육의 혜택을 입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신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기독교 전파와 민족문화 창달을 위해 광선의숙을 개설하였다. 애초에는 중문리에 영명(永明)학교를 설립하였다. 하지만, 중문리에는 아동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모슬포에 ‘개량서당’형식의 기독교를 설립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립된 광선의숙은 중문리에 사는 소년 강문호와 강규언을 발탁하여 교육한 후에 군산 영명학교로 유학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들은 나중에 목사와 독립운동가가 되었고 그중에 강규언은 교사로 봉직하기도 했다. 또한 가파도 출신의 고수선을 공부시켜 제주도의 첫 여의사, 사회사업가를 만들기도 하였다.⁴⁷⁾

광선의숙은 광복조선(光復朝鮮) 즉 ‘조선을 광복한다’는 뜻이다. 그리하여 기독교의 박애사상을 바탕으로 민족주의 교육방침을 세우고 조선의 모슬포 교회의 부설기관으로 운영하였다. 특히 항일투쟁에 헌신하는 자가 많아 경찰의 감시가 항상 뒤 따랐다. 이렇게 개설되었던 광선의숙의 생명은 길지 못했다. 기록은 “항일독립운동을 고취하는 민족운동의 장이 되었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1929년 말경에 문을 닫은 것으로 짐작된다.”⁴⁸⁾고 전하고 있다.

전쟁의 한 중간에서 갖은 고난과 수탈의 상황 속에서도 조선의 광복을 열망했던 이들이 있었다.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자손들을 교육시키는 것이었다. 지도자

47) 손재운 (2009), 앞의 책, 101쪽

48) 손재운 (2009), 앞의 책, 130쪽

들을 세워 사람들을 이끌고 이 땅에 필요한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이다.



<그림 7> 광선의숙(터)

(6) 모슬포교회

모슬포교회는 1907년 9월 평양대부흥운동⁴⁹⁾ 시절 조선에서 처음 목사 안수를 받은 7명의 목사 중 한명인 이기풍목사가 1909년 9월 1일 창립한 교회이다. 1920년에는 광선의숙이라는 학교를 설립하였고, 7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하였으며 4·3사건 때 수많은 생명을 신원보증과 자수강언으로 구해낸 조남수 목사가 시무했던 교회이다. 6·25사변, 1·4 후퇴 때는 피난 온 많은 사람 중에 150여분을 모시고 숙식을 제공했으며, 5개 교회를 분립·개척하였다. 모슬포교회에서 가장 기억해야 할 이름이 자수강언을 한 조남수 목사다. 조남수 목사는 자신의 회고록 ‘4·3 진상’에서 1948년 11월 20일 새벽부터 일어났던 일들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49) 평양대부흥운동은 1907년 1월 14일, 15일 양일간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부흥회를 시작으로 6월까지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된 한국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다. 이 운동이 기반이 되어 1907년 9월 17일에는 길선주, 주기철, 이기풍을 비롯한 한국인 7명이 첫 목사 안수를 받고 장로교 독노회가 창립되었다. - 박용규(2008), 앞의 책, pp.126~129 요약

당시의 상황은 피차에 대화하다가도 수상하다 싶으면 쏘아버리는 시절이었기에 균경과 대화하려는 민간인은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내 운명은 오늘 밤에도 기약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공비들에게 개죽음을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경찰에 가서 소신을 밝히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떳떳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의 만류를 뿌리치고 모슬포 경찰서로 달렸다. 흥분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하소연하듯 하는 내 진술을 들은 서장은 ‘좀 진정하고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무슨 일을 해도 좋으니 안심하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하면서 자기소개를 한다. 그분은 함경도 태생으로 중국에서 독립군에 가담하여 항일투쟁을 하다가 해방되어 귀국한 문형순 씨로서 3개월 전에 경찰 응원대장으로 임명받고 들어온 9척 장신의 풍채 좋은 40대의 중년 신사였다. 나는 그간의 도민들의 상황을 설명하였고, 이대로라면 다 죽어야 할 것이라고 항변하였다. 그는 내 이야기에 “듣고 보니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이 원하는 그 근본적인 대책이란 어떤 것입니까?”하고 되물었다. 나는 거기에 더 자세한 의견을 개진했다. “첫째로 지금 제주도 민중은 잘 구슬리면 아군이 될 수도 있고, 내 버려두면 적군, 즉 공비의 동조자나 적군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잘 계몽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쌀, 돈, 양말 등을 공비들에게 내주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만 목숨을 위해서 내준 것이니 절대로 죄가 아니다. 솔직히 자수만 하면 용서한다.’ 고 말하십시오. 그들이 자수만 하면 아군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둘째로 중요한 문제는 공비들을 어떻게 토벌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의 상황으로는 토벌 작전을 장기적으로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주에는 돌이 많습니다. 부락마다 돌로 성을 쌓게 하고 출입구 하나만 내고 부락 주위에 성을 쌓게 합니다. 그리고 부락 청년 4, 5명만 배치해서 지키게 하면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경찰의 공포 분위기를 해소하는 길입니다. 경찰이 민중의 적으로 인식된다면 아무 일도 안 될 것입니다. 경찰은 어디까지나 민중편이다. 민중을 위한 민중의 공복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 뒤에 문대장은 조 목사의 말에 찬성하여 자수강연을 하였으나 아무도 자수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 군경은 다시 주민들을 소집하였고, 주민들은 다시 광장에 모였다. 그러나 군경은 광장에서 자리를 피하였다. 그리고 나만 그 자리에 남았다. 남아서 나는 사람들에게 자수강연을 하였다. 그랬더니 앞에서 한 두 사람이 일어나 자수하겠다고 나오기 시작했다. 다시금 호소하려니까 어느새 수 십 명이 나와 있었다. 경찰서에 가서 기명을 하니 자수자가 모두 98명에 달했다. 이 소문이 퍼지면서 각 부락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다. 한림, 화순, 중문, 서귀에 이르기까지 수백 회의 강연에서 2천명의 자수자를 얻었다.⁵⁰⁾



<그림 8> 모슬포교회

50) 조남수 (1988), 앞의 책, pp.140~141

이렇게 모슬포교회는 지역사회의 중심이었고, 민족을 위해 학교를 개설하여 후진 양성에 힘썼다. 그러나 그 역사에서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은 총에 맞아 죽어가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경찰서장을 설득하고, 도민들에게 강연하고, 잡혀있는 사람들을 위해 보증서는 행동을 통해 그들의 생명을 살렸다는 것이다.

(7) 육군 98병원(대정여고)

대정지역에서 생명을 살리는 것은 모슬포교회와 4·3사건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지금은 대정여고로 사용되는 예전 육군 98병원은 한국전쟁 당시에 지금의 통합병원의 역할을 하던 최고진료기관이었다.



<그림 9> 육군98병원

김응철(2008)은 당시 종합학교 출신 소위가 겪은 6·25라는 수기를 인용하여 “전쟁 중 부상을 당해 사단 이동병원으로 옮겼지만 위험해서 수술을 못한다고 했고, 다시 대구 1육군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그곳에서도 수술이 불가하다하여 제주도 육군 98병원에 와서야 수술 후 건강을 회복하여 부대로 복귀할 수 있었다”⁵¹⁾고 기록하고 있다. 전쟁 중의 부상자들에게는 부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던 것이다. 병원이 주둔할 당시에는 약 50여동이 있었는데 57년도에 전주지역으로 병원이 이전한 후 비어 있다가 1964년 대정여고가 개교하면서 구 건물들은 다 헐어버리게 되었다. 지금은 한 동이 남아 현재 가사실습실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2017년 4월 문화재청으로부터 등록문화재 제680호로 등록되었다.

(8) 강병대교회

모슬포에는 군사시설 중에 또 다른 등록문화유적지가 있다. 강병대(强兵臺)교회이다. 강병대교회는 6·25 전쟁이 발발한 후 1951년 3월 21일 모슬포에 육군 제1훈련소가 출범한 뒤에 당시 훈련소장이었던 소장 장도영이 훈련 장병들의 정신크 강화를 위하여 신앙의 힘과 정신적 위안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1952년 5월에 건립하였다. 이 건물은 공병대에 의해 건립된 것으로 1956년까지 육군 제1훈련소에서 훈련받은 약 50만 명의 신병 중 많은 장병들이 이 강병대교회를 거쳐 갔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정부 요인과 외국 사절단들이 교회를 방문하였다. 한국전쟁 중에는 늘어난 피난민들과 주변의 어려운 주민들에게 봉사와 전도 활동을 겸하기도 하였다. 1952년에는 교회 부설 셋별유치원이 개원하였고, 이 건물을 활용하여 중학교 진학을 못한 어려운 소년 소녀들에게 ‘통신강의록’으로 고등공민학교 과정을 개설하여 도내 최초의 야간학교를 운영하였다. 1955년 육군 제2훈련소[연무대]로 통폐합되어 제주경비사령부가 들어섰고, 1965년부터는 공군 제8456부대의 기지교회로 사용되면서 교회 부설 신우고등공민학교가 개설되었다

51) 김응철 (2008), 「‘모슬포 훈련소’는 역사의 기둥이었다 : 대정여고 교사 인터뷰」, 국방홍보원, 국방저널 통권 415호, p.37

가 1981년 폐교되었다. 지금은 공군부대교회로 사용되고 있다.



<그림 10> 강병대교회

(9) 평화의 터

대정읍에서 제주시 방향으로 모슬포 해병부대 정문 앞으로 오면 대정고등학교 입구에 평화의 터가 있다. 6·25전쟁 당시에 50만 여명의 장병을 배출한 육군 제1 훈련소와 1951년에는 공군사관학교가 있었고 해병대 훈련소까지 대정은 우리나라 군(軍)의 역사 속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땅에서 이 나라의 평화를 수호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육군, 해군, 공군과 해병대의 상징을 탑으로 만들어 세워놓았다. 그리고 여전히 평화의 터에서 바로 보이는 모슬봉 정상에는 공군 레이더 기지가 있고, 길 건너에는 해병대 부대가 위치하고 있다. 평화를 위해 존재한 군을 기억하고, 평화를 위해 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기억

해야 하는 것은 군이 무기와 힘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관점이 아니라, 그 동안 수 없이 많은 이름 없는 군인들의 희생으로 지금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누군가의 목숨을 내어주는 희생이 켜켜이 쌓여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가 되었다.



<그림 11> 평화의 터

2. 성(聖)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를 통한 평화의 길 스토리텔링

청빈과 무소유로 대변되는 이탈리아 아시시 출신의 성 프란시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순례자이다. 순례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드러낸 성 프란시스는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버린 위대한 성자였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준 청빈한 성자, 죽음을 각오하고 적군인 이슬람까지 복음을 전한 성자, 무소유의 성자였다. 가난한 자들과 나환자의 고통을 진심으로 마

음 아파하며, 그들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료해 준 성자였다. 그는 만인이 인정하는 성인으로 칭호를 받고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아니 지구가 종말이 오기까지 존경 받고 사랑 받고, 예수와 닮은 삶의 모습이 만인에게 기억되고 도전 받게 하였다. 그는 노동과 순례를 동반한 즉 고난을 통한 기도와 영성생활을 주장했다. 그 중에서 기도는 예수가 수난 당할 때 겪었던 고난과 그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기도였다. 그리고 기도와 함께 예수의 삶을 살려고 헌신하였다. 예수의 삶을 따라 갈 수 있도록 기도 하였으며 자기가 기도한 내용대로 고난의 삶 속에 실천하였다.

그의 기도의 특징은 한마디로 많은 시련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 그의 간절한 기도는 자기가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 그의 몸과 영혼에 예수가 수난 당할 때 겪었던 고난과 그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기도였다. 그리고 기도와 함께 예수의 삶을 살려고 헌신 하였다. 백용운은 이런 성 프란시스의 삶을 “그의 마음속에 신의 아들인 예수가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신이면서 동등 됨을 여기지 않고, 이 땅에 와서 피조물들에게 당한 고난을 끝까지 참으며 보여준 한없는 그 사랑을 자기도 가능한 많이 체험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의 기도이다. 그리고 그는 기도한 내용대로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며, 청빈하게, 가난하게, 섬기면서 희생적인 삶을 살았다.”⁵²⁾고 평가하고 있다.

성 프란시스는 이것을 바탕으로 기복적인 기도가 아닌, 합당하고 솔직한 기도를 드렸다. 그 내용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 그리고 평화를 위한 기도였다. 자기를 위한 기도는 위에 기록한대로 예수의 삶을 따라가게 해 달라는 기도와 예수의 흔적을 가지길 원하는 기도뿐이다. 그는 세상의 통속적인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늘나라의 기도를 보여 준 것이다. 그의 평화의 기도는 아래와 같다.

*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⁵³⁾

52) 백용운 (2012), 「성 프란시스 영성의 신학적 성찰」, 한남대학교 학제신학대학원 석사논문, p.49

53) 작은형제회 한국관구 편역 (1985), 『성 프란치스코와 성녀 글라라의 글』, 분도출판사, p.226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 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 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 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를 온전히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버려 줌으로써
 영생을 누림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 프란시스의 이 기도는 복음적 내용이 깊으며, 모든 인류가 본을 받아야 할 매우 아름답고 고귀한 기도이다. 인류에 대한 사랑과 평화, 희망, 헌신 등 복음적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 돋보이는 것은 그는 기도한 내용대로 살려고 처절하리만큼 뼈를 깎는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진실하게 오직 절대적인 신이 원하는 뜻에 초점을 맞춘 삶이었다. 이런 성 프란시스의 삶과 ‘평화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평화’에 대한 관점을 엿볼 수 있다. 그에게 평화는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 생긴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는 것이고, 극심한 빈부의 격차 속에서 자신의 부유함을 포기하고 자발적 가난으로 들어간 차별을 극복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앞서 연구한 구약성서의 평화의 개념인 약육강식이 사라지고 강자와 약자

가 공존하는 의미와 일치한다. 게다가 이 평화의 개념을 가지고 순례를 함으로 신약성서의 평화의 개념인 신이 함께하는 상태를 실천하였다. 또한 그는 기도한 내용대로 그대로 실천한 삶이었고, 응답까지 받은 위대한 기도의 삶을 보임으로써 오늘날 우리들에게 신이 원하는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준 삶이었다.

평화의 섬 제주에서 대정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의 유적이 상징적으로 많이 남아 있는 곳이다. 그 가운데는 전쟁의 상흔이 있으며, 처참한 학살이 있었고, 전쟁을 준비하기 전초기지로 사용된 곳이 있다. 성 프란시스의 기도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평화를 갈망하며, 평화를 위해 쓰임받기 위한 기도이기에 많은 의미를 담을 수 있겠다. 우리는 기도를 특정한 종교시설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삶을 통해 순례를 통해 기도했던 성 프란시스처럼 길에서 아픔과 상처 가운데 세상을 위해, 그 분의 진정한 평화를 찾기 위해 하는 기도를 재발견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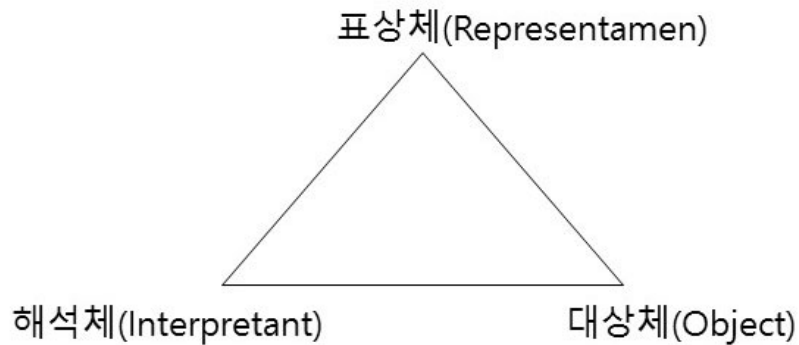
3. 평화의 순례길 스토리텔링

1) 순례길 서사 형식 구조

평화의 순례길은 대정지역의 역사문화 POI를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를 통하여 걸으며 순례하는 길을 스토리텔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순례자는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POI의 내용을 인식하고, 제시된 기도의 상징을 통하여 사고함으로써 자신의 해석을 내어놓아야 한다. 그렇게 도출한 해석은 다시 POI의 내용과 결합하여 또 다른 해석을 도출한다. 그래서 한정된 답을 얻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순환성을 가지며 생산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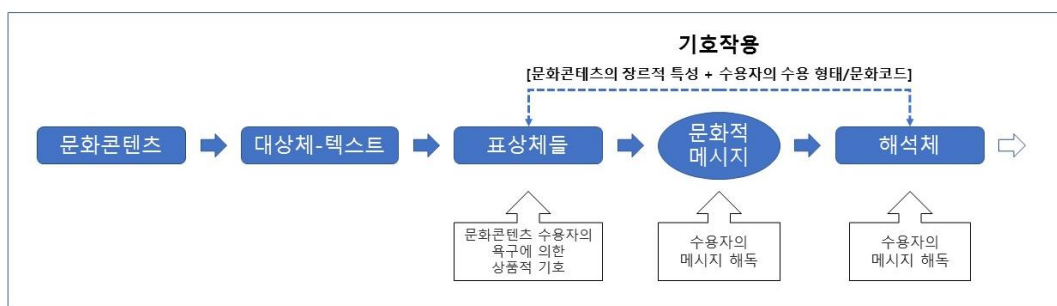
한교정(2013)은 퍼스(Charles Sanders Peirce)를 인용하여 “기호가 인간의 지식과 사고의 매개체로서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으며, 기호를 대상체(Object), 해석체

(Interpretant), 표상체(Representamen)의 세 가지 요소로 구분”⁵⁴⁾하여 문화현상을 기호의 삼원구조로 설명하였다.



<그림 12> 피스의 기호 삼원구조⁵⁵⁾

이런 피스의 기호의 삼원구조는 표상체와 대상체가 작용하여 해석체를 결정하게 된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이런 해석의 과정이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기호의 대상을 지시하면서 기호의 해석체를 결정하며, 그 해석체는 다시 기호의 대상을 지시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해석체를 결정하는 기호의 연쇄작용을 한다. 이 연쇄작용은 고정된 의미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확정되지 않은 채로 끊임없이 생산되는 것을 통하여 수용자에 따라 해석을 다양하게 한다.



<그림 13> 피스의 기호작용에 의한 문화콘텐츠의 의미작용⁵⁶⁾

54) 한교정 (2013), 『문화원형의 스토리텔링 전략과 분석』, 북코리아, p.57

55) 한교정 (2013), 앞의 책, p.57

퍼스의 기호작용에 의한 의미작용은 중세 영성가들에 의해 전해오는 기도의 방법과 매우 유사하다. 특히 가톨릭 성녀 아빌라의 데레사는 기도의 방법을 9개의 단계⁵⁷⁾로 매우 분명하게 분류하였다.

- ① 구송기도 (vocal prayer)
- ② 묵상 (meditation)
- ③ 정감의 기도 (affective prayer)
- ④ 단순함의 기도 (prayer of simplicity)
- ⑤ 주부적 관상 (infused contemplation)
- ⑥ 정적의 기도 (prayer of quiety)
- ⑦ 일치의 기도 (prayer of union)
- ⑧ 순응일치의 기도 (prayer of conforming union)
- ⑨ 변형일치의 기도 (prayer of transforming union)

①~④는 주로 영성생활의 수덕단계에 속하며 ⑤~⑨는 주입기도이며 영성생활의 신비적 단계에 속한다. 이중에서 ‘① 구송기도’는 글이나 말이나 관계없이 말마디로 표현된 기도형식을 뜻한다. 우리가 요즘 교회나 성당에서 행해지는 기도의 형식이 여기에 속한다. 다음의 단계인 ‘② 묵상’은 초자연적 진리가 지닌 의미를 꿰뚫어보고, 그것을 사랑하며 은총의 도움으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그 대상으로 마음을 돌려 추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단계부터 퍼스의 기호작용에서 해석하는 의미작용과 합일되는 부분이 도출되는 것이다. 묵상의 추리작용과 기호작용에서의 해석이 같은 방법으로 이뤄진다. 여기서 묵상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은 묵상과 사색이, 묵상과 지적탐구가 혼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성가들은 추리를 묵상에서 멈추지 말고 계속 진행하여 ‘③ 정감의 기도’단계로 들어가라고 조언한다. 정감의 기도란 의지작용이 지성의 추리작용보다 우세한 형태의 기도이다. 정감의 기도와 묵상간의 특수한 차이는 없지만, 사랑이 우세한 단순화된 묵상이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된 추리는 ‘④ 단순성의 기도’로 깊어진다. 이 단계에 접어들면 더 이상의 불필요한 추리가 사라지고 신과 관계된 대상

56) 한교정 (2013), 앞의 책, p.61

57) 조던 오먼, 이흥근 역 (1987), 『영성신학』, 분도출판사, p.365

을 단순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응시하기 시작한다. 여기까지가 ‘수덕단계’, 즉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기도의 단계에 속한다. 표상체와 대상체가 작용하여 해석체가 되고 그 해석체가 다시 대상체가 되어 표상체와 연쇄작용을 하는 그 순환고리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은 기도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

평화의 순례길에서는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문이 표상체로 대정지역의 POI가 대상체로 적용되어 자신만의 해석체를 만들어 내고, 그 해석체는 다시 대상체와 새로운 해석을 해내는 표상체가 된다. 순례자가 길을 걸으며 반복하는 연쇄작용은 성 프란시스의 기도문을 자연과 역사 속에서 묵상함을 통하여 추리를 하게 되고, 반복적인 추리를 통해 새로운 해석과 성찰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해석과 성찰의 반복의 계속은 우리를 ‘단순성의 기도’로 이끌어 미움과 상처와 어둠과 슬픔이 있는 곳에 사랑과 용서와 광명과 기쁨을 발견하게 한다. 이러한 발견은 우리에게 평화와 치유를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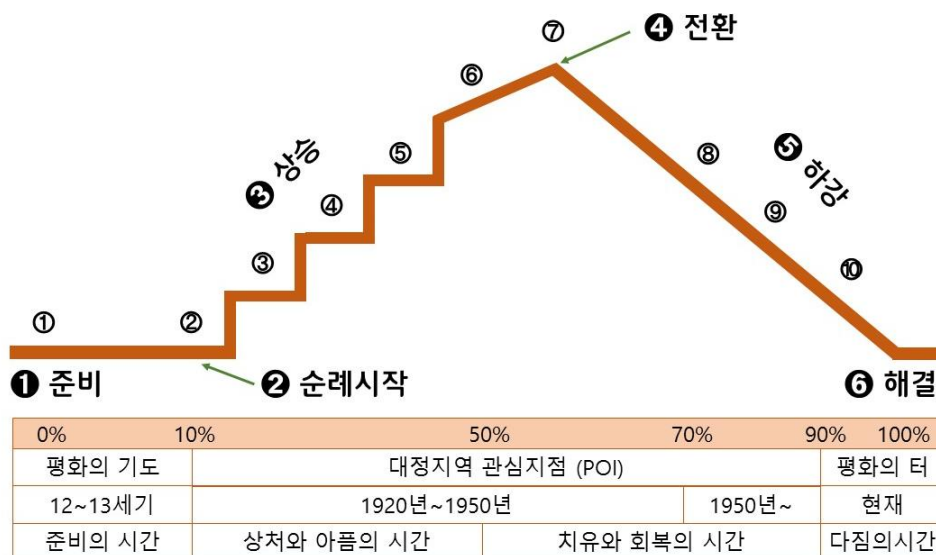
‘평화의 기도’ 일부를 표상체로 대정지역의 관심지점(POI)을 대상체로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평화의 기도’와 대정지역 관심지점(POI)의 연결점

표 상 체	대 상 체	
‘평화의 기도’	관심지점(POI)	
	지 명	핵심단어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송악산 해안동굴	태평양전쟁 해안동굴을 위한 노역 가이텐(인간어뢰)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섯알오름	4·3 사건 학살 백조일손지묘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알뜨르비행장	난징폭격 가미가제 연습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모슬포항	도민 소개령 도민 입도 저지 수탈의 통로
위로 받기보다는 위로하고	광선의숙(터)	기독교교 민족지도자 양성 광복조선
이해 받기보다는 이해하고	모슬포교회	이기풍 목사 4·3 사건 자수강연
사랑 받기보다는 사랑하고	대정여고(육군98병원)	한국전쟁 통합병원
우리를 온전히 줌으로써	강병대교회	한국최초의 군인교회 지역봉사
자기를 버려 죽음으로써	평화의 터	육·해·공·해병대 상징물 자기희생

2) 평화의 순례길 구성과 목상집 스토리라인 분석



<그림 14> 평화의 순례길을 위한 목상집 스토리라인

<그림14>에서 각각의 번호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 | | |
|-----------------|----------------|
| ① 성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 | ⑥ 광선의숙(터) |
| ② 송악산 해안동굴 | ⑦ 모슬포교회 |
| ③ 첫알오름 학살터 | ⑧ 육군98병원(대정여고) |
| ④ 알뜨르 비행장 | ⑨ 강병대교회 |
| ⑤ 모슬포항 | ⑩ 평화의 터 |

평화의 순례길을 위한 목상집을 순례자가 순례하는 순서에 따라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준비의 시간 : 순례길의 걷기 전에 사전준비의 성격으로 성 프란시스의 생애에 대한 내용과 중심테마가 되는 ‘평화의 기도’ 전문을 읽음을 통해 이 길을 걷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고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한다.
- ② 상처와 아픔의 시간 : 일본에 의해 나라가 침략당하고 전쟁의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해방 후에도 동족에 의해 4·3의 슬픔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역사적인 사건을 눈으로 보고 읽음을 통해서 과거의 역사와 자신의 삶을 발견하고 평화가 깨어진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한다.
- ③ 치유와 회복의 시간 : 항일교육의 자리와 4·3 사건에서 자수강연을 하며 생명살림의 노력을 했던 조남수 목사의 회고를 통하여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희망의 빛이 있음을 알게 하고, 한국전쟁 중에 병원에서 상처를 싸매주었으며, 신앙의 힘으로 자기희생을 결심하고 전장으로 나갔던 군인들의 모습이 이 땅에 평화를 이루기 위한 희생이었음을 기억하게 한다.
- ④ 다짐의 시간 : 순례를 마치며 마주하는 평화의 터에서 맞이하는 군인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며, 앞으로 자신의 인생 속에서 평화를 어떻게 이루어 가야할지를 다짐하게 한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목상집 제작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그림 15> 평화의 순례길 목상집 구성

순례길 구성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리적 위치이다. POI사이의 거리와 위치, 순서 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체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목상집을 제작하면서 서사구조의 효율성을 위해 출발지를 해안동굴이 보이는 송악산 등반로 입구로 설정하려 한다. 후에 셋알오름 학살터를 지나서 알뜨르 비행장을 거쳐서 모슬포항과 광선의숙(터), 모슬포교회, 육군98병원(대정여고), 강병대교회를 거쳐서 평화의 터에서 마치는 길로 구성하였다. 그 길은 다음과 같다.



<그림 16> 평화의 순례길 지도

그리고 POI사이의 거리는 다음과 같이 산정되었다. (총 11.37km)

- 첫 번째 코스 : 송악산 해안동굴 → 셋알오름 학살터 (2.55km)
- 두 번째 코스 : 셋알오름 학살터 → 알뜨르 비행장 지하병커 (1.86km)
- 세 번째 코스 : 알뜨르 비행장 지하병커 → 모슬포항 (2.66km)
- 네 번째 코스 : 모슬포항 → 광선의숙(터) (900m)
- 다섯 번째 코스 : 광선의숙(터) → 모슬포교회 (500m)
- 여섯 번째 코스 : 모슬포교회 → 육군98병원(대정여고) (1.1km)
- 일곱 번째 코스 : 육군98병원(대정여고) → 강병대교회 (1.2km)
- 여덟 번째 코스 : 강병대교회 → 평화의 터 (600m)

3) 평화의 순례길 구성과 목상집 제작

목상집은 기도를 돕기 위해 제작하는 책이다. 이런 형식의 책은 특별한 틀이 있거나 형태, 요소, 양식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목상집은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 주제와 제목과 성경구절이 들어가며, 연관된 찬송(찬양)을 제안한다. 그리고 기도를 돕기 위해 기도문을 첨부한다. 거기에 더하여 생각할 수 있는 짧은 예화나 에세이를 기록한 것이 전부이다.

평화의 순례길을 위한 목상집은 관광객 혹은 순례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역의 이야기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기 때문에 위의 요소에 안내 기능을 더하여 제작하려 한다. 또한 순례자들의 휴대성을 고려하여 크기는 12cm×19cm로 제한하며, POI에서는 좌우면을 활용하여 목상내용을 한 번에 취할 수 있도록 구성하려 한다. 그 예시는 ‘송악산 해안동굴’로 <그림 17>과 <그림 18>으로 제안하려 한다. 좌(左)면인 <그림 17>에는 기도문과 위치, POI에 대한 역사 설명을 할 것이며, 우(右)면인 <그림 18>에는 목상해야 할 성경구절과 찬양을 제안하려 한다. 후에 다음 POI까지의 지도를 제시하여 그 안내를 하려 한다.

제2장 -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 송악산 해안동굴

송악산 이야기

제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의 한 곳이며,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이 송악산이다.
지질학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역사적으로도 우리의 가슴을 울린다.

태평양 전쟁 말기인 1944년 8월 10에 괌이 함락되었다.
이어 10월 26일에 필리핀이 함락되고 일본은 패전을 앞두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 때 일본은 천황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연합군의 일본 본토 상륙을 저지하려 하였다.
이를 대비하여 길목을 차단하기 위한 작전을 수립하였고, 이것이 결호(決號)작전이다.
일본군은 이 결호작전을 결1호, 결2호... 결7호로 7개의 루트를 설정하였는데,
그 중에서 '결7호작전'이 제주와 관련한 작전이었다.
이 작전은 미군이 제주도를 통해 일본 본토로 가는 시나리오였다.
이를 위해 일본군은 하늘에 가미가제(神風)를 두었다면,
제주바다에는 가이텐(回天)을 만들었다.
인간어뢰처럼 폭탄을 실은 소형보트를 숨겨놓고 미군함대가 나타나면,
미군 군함에 부딪혀 자폭하는 자살특공대였다.
일본군은 이 가이텐을 숨겨놓기 위해 송악산에 해안 동굴을 팠다.
실제로 미군 상륙 저지 전투는 제주 해안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위해 강제로 동원된 한국인의 고초는 지독했다.
나이를 불문하고 마을로 인원이 할당되면
칠순 노인도 동원 되어 노역을 하며 만든 것이 해안동굴이다.
아름다움과 화려함속에 이런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품고 있는 곳이 바로 송악산이다.



사진 - 송악산 해안동굴진지

<그림 17> 평화의 순례길 목상집 : 좌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 목상말씀 : 마태복음 5:38~44

- 38.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 39.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 40.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 41.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고
- 42.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 43.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 44.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 찬양 :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의 순례길 지도 (송악산 해안동굴 →셋알오름 학살터)

<그림 18> 평화의 순례길 목상집 : 우면

V. 결론

이 연구는 기존 순례길과의 차별성과 새롭게 구성된 순례길의 명확한 목적성을 위해 인문학적인 고찰과 역사적 사실을 조사하고, 스토리텔링의 요소와 구조를 적용하여, 효과적인 순례를 돕는 보조수단으로 목상집을 발간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연구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화의 개념을 확장하고 성서에서 정의하는 평화를 알아보았다. 구약성서에서의 평화는 약육강식을 초월한 평화이며 강자와 약자가 공존하는 평화였으며 이미 죄와 악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 평화였다. 그리고 신약성서의 평화는 부활한 예수가 함께 하는 임재의 평화개념이 더해졌다. 즉 강자와 약자가 공존하는 세상 속에 신이 함께 동행하는 것이 성서의 평화개념이다. 그리고 선행연구와 역사적인 걷기의 의미와 심리적인 연관성을 연구하여 이 평화를 체험하고 적용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순례(걷기)임을 도출하였다.

성서적인 평화의 개념으로 순례를 실천한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를 모방하였다. 그는 자발적 가난과 ‘탁발수도’를 통하여 빈부의 격차 속에서 느끼는 상실감과 십자군 전쟁 후에 혼란 했던 사회 속에서 순례를 하며 ‘평화의 기도’를 드림으로 신약성서에서 추가된 평화의 개념인 신의 동행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가 성서적 평화를 잘 내포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이 ‘평화의 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평화의 순례길을 설계했다. ‘평화의 기도’는 ‘평화의 섬’인 제주도과 ‘평화’로 매개가 되었다. 제주는 성 프란시스와 비슷한 전쟁의 경험과 그 유산이 잔존해 있으며, 갈수록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현재의 상황을 고스란히 대변할 수 있는 대정지역을 범위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대정지역의 POI를 중심으로 역사이야기를 추출하였다. 후에 ‘평화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적인 기도문과 연결하였다.

평화의 기도문과 대정지역의 POI에서 추출한 역사이야기는 서로 상호작용을 통하여 추측과 해석을 하게 하였고, 그를 통해 자아성찰과 평화에 대한 개념 확장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상호작용을 통한 해석은 중세 영성가였던 성녀 아빌라의 데레사의 기도의 단계와 연결하여 심화하였다. 그리고 연결의 방법으로 신체적 고난인 순례(걷기)를 통해 극대화 시키는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평화와 우리의 삶, 지역의 역사와 상호작용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위해 묵상집 발간을 제안하였으며, 그를 위해 스토리라인을 만들고 구조를 설정하였으며 내용을 구성하였다.

향후 이 연구의 결과물인 묵상집이 발간이 되면, 제주를 찾는 많은 기독교인들과 기독교성지순례자들에게 이 땅에서 종교의 역할과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과거 십자군 전쟁의 상처를 도시와 농촌간의 빈부의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순례하며 평화의 기도를 드렸던 성 프란시스를 따라 대정지역의 POI를 순례함을 통해, 관광의 차원을 넘어 자아성찰과 세상과 합일되는 깨달음이 일어나기를 있을 것을 예상해 본다. 또한 이런 종교 역사 유적을 넘어서 우리의 역사와 함께 하는 순례는 기독교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종교를 통하여 발전된다면 ‘평화의 섬’ 제주가 치유와 정화의 역할을 하는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 중 선행연구 가운데 발견한 산티아고 순례길의 예를 통해, 종교적으로 시작한 순례가 지금은 비종교인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작은 종교적인 평화의 관점을 그 시작점으로 삼았으나 종교를 넘어서 온 인류에게 평화를 순례하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일반적인 걷기는 심리적인 안정을 누리고, 복잡한 세상에서 분리되며,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안정감을 갖게 된다. 평화의 순례길은 이런 걷기의 순기능을 바탕으로 감정의 정화로 진정한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다. 앞으로 평화의 순례길이 기독교에 머무르지 않고, 가톨릭과 불교를 넘어 제주 곳곳에 생겨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단행본》

- 가스펠서브 (2013), 『교회용어사전』, 생명의말씀사
- 남제주문화원 (2006), 『남제주의 문화유산』, 남제주문화원
- 대한성서공회 편 (2007), 『성경전서』, 대한성서공회, 이사야 11:1~9
- 두산동아 사전편찬실 (1998), 『동아 새국어사전』, 두산동아
- 레베카 솔닛, 김정아 역 (2003), 『걷기의 역사』, 민음사
- 리처드 포스터·게일비비, 김명희·양혜원 역 (2009), 『영성을 살다』, Ivp
- 박용규 (2008), 『제주 기독교회사』, 생명의 말씀사,
- 박용후 (1990), 『최남의 향도 모슬포』, 도서출판 제주문화
- 박종화 (1995), 『기독교와 평화 교육 : 평화, 평화교육의 종교적 이해』, 내일을 여는 책
- 손재운 (2009), 『모슬포교회 100년사』, 한국기독교장로회 모슬포교회
- 윤응진 (2001), 『기독교 평화교육론』, 한신대학교 출판부
- 윤태일 (2012), 『까미노 데 산티아고 여행 안내서』, 다딿
- 이영권 (2005), 『새로쓰는 제주사』, (주)휴머니스트 출판그룹
- 이희성 (2001), 『국어대사전』, 서울:민중서림
- 작은형제회 한국관구 편역 (1985), 『성 프란치스코와 성녀 글라라의 글』, 분도출판사
- 조남수 (1988), 『4·3진상』, 도서출판 월간 관광제주
- 조던 오먼, 이홍근 역 (1987), 『영성신학』, 분도출판사
- 제주4·3연구소 (1993), 『4·3장정 6.』, 나라출판
- 최정수 (2012), 『산티아고 그 유혹의 길』, 한송미디어
- 한교정 (2013), 『문화원형의 스토리텔링 전략과 분석』, 북코리아

Boers,A.P., 유지훈 역 (2008), 『걸어서 길이 되는 곳, 산티아고』,살림
Wengst, K. 정지런 옮김 (1994), 『로마의 평화 : 예수와 초대 그리스도교의 평화
인식과 경험』, 한국신학연구소

《학술지》

김응철 (2008), 「‘모슬포 훈련소’는 역사의 기둥이었다 : 대정여고 교사 인터뷰」,
국방홍보원, 국방저널 통권 415호,
조성윤(2012), 「알뜨르 비행장 : 일본 해군의 제주도 항공기지 건설과정」, 탐라
문화 41권

《논문》

김원복 (2008),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 제주도에 구축된 일본군 진지에 관한
연구:모슬포 지역을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석사 논문
민슬기 (2011), 「스페인 산티아고길 도보순례의 의미와 소비」, 전북대학교 대학
원 석사논문
박보영 (2008), 「평화교육의 이론과 과제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백용운 (2012), 「성 프란시스 영성의 신학적 성찰」, 한남대학교 학제신학대학원
석사논문
임경미 (2014), 「산티아고 순례길 여행 체험에 대한 평생학습적 의미」, 숭실대학
교 석사논문

《웹사이트》

제주 CBS 홈페이지 : <http://cbspodcast.com/podcast/jejuCBS/road.html>
천주교 순례길 홈페이지 : http://peacejeju.net/bbs/content.php?co_id=cour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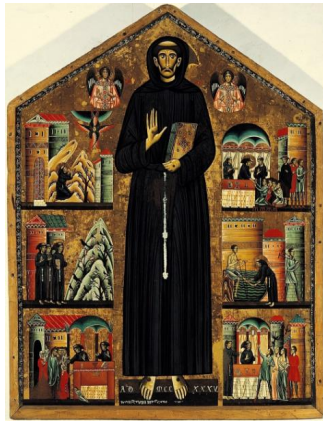
[부록]

제1장 - 평화의 기도

- 순례를 시작하면서

평화의 기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림] 성프란시스의 제단화
보나벤투라 베를링기에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 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 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 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를 온전히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버려 죽음으로써

영생을 누림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부록 1> 평화의 순례길 목상집 : p.2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성(聖)프란시스의 생애

청빈과 무소유로 대변되는 이탈리아 아시시 출신의 성 프란시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순례자이다.
순례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드러낸 성 프란시스는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버린 위대한 성자였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준 청빈한 성자, 죽음을 각오하고 적군인 이슬람까지 복음을 전한 성자, 무소유의 성자였다.
가난한 자들과 나환자의 고통을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며, 그들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료해 준 성자였다.
그는 만인이 인정하는 성인으로 칭호를 받고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아니 지구가 종말이 오기까지 존경 받고 사랑 받고 그리스도와 닮은 삶의 모습이 만인에게 기억되고 도전 받게 하였다.
그는 노동과 순례를 동반한 즉 고난을 통한 기도와 영성생활을 실천했다.
그 중에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난 당할 때 겪었던 고난과 그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기도였다.
그리고 기도와 함께 예수의 삶을 살려고 헌신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갈 수 있도록 기도 하였으며 자기가 기도한 내용대로 고난의 삶 속에 실천하였다.
그렇게 했던 기도가 '평화의 기도'이다.

.....
우리는 '평화의 기도'를 묵상하며 순례길을 걸으려한다.
평화의 기도문 한절 한절을 가슴에 품고,
순례길에 있는 역사유적지를 걸으며,
성 프란시스처럼 성경의 평화를 경험하기를 소망한다.

<부록 2> 평화의 순례길 묵상집 : p.3

제2장 -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 송악산 해안동굴

송악산 이야기

제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의 한 곳이며,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이 송악산이다.
지질학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역사적으로도 우리의 가슴을 울린다.

태평양 전쟁 말기인 1944년 8월 10에 괌이 함락되었다.
이어 10월 26일에 필리핀이 함락되고 일본은 패전을 앞두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 때 일본은 천황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연합군의 일본 본토 상륙을 저지하려 하였다.
이를 대비하여 길목을 차단하기 위한 작전을 수립하였고, 이것이 결호(決號)작전이다.
일본군은 이 결호작전을 결1호, 결2호... 결7호로 7개의 루트를 설정하였는데,
그 중에서 '결7호작전'이 제주와 관련한 작전이었다.
이 작전은 미군이 제주도를 통해 일본 본토로 가는 시나리오였다.
이를 위해 일본군은 하늘에 가미가제(神風)를 두었다면,
제주바다에는 가이텐(回天)을 만들었다.
인간어뢰처럼 폭탄을 실은 소형보트를 숨겨놓고 미군함대가 나타나면,
미군 군함에 부딪혀 자폭하는 자살특공대였다.
일본군은 이 가이텐을 숨겨놓기 위해 송악산에 해안 동굴을 팠다.
실제로 미군 상륙 저지 전투는 제주 해안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위해 강제로 동원된 한국인의 고초는 지독했다.
나이를 불문하고 마을로 인원이 할당되면
칠순 노인도 동원 되어 노역을 하며 만든 것이 해안동굴이다.
아름다움과 화려함속에 이런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품고 있는 곳이 바로 송악산이다.



사진 - 송악산 해안동굴진지

<부록 3> 평화의 순례길 묵상집 : p.4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 묵상말씀 : 마태복음 5:38~44

- 38.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40.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41.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고
42.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43.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 찬양 :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의 순례길 지도 (송악산 해안동굴 →셋알오름 학살터)

<부록 4> 평화의 순례길 묵상집 : p.5

제3장 -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 첫알오름 학살터

첫알오름 이야기

송악산에서 대정읍으로 걸음을 걸으면, 알뜨르 비행장 옆에 첫알오름이 있다.
평온한 들판에 야트막하게 솟은 오름은 전형적인 제주의 품을 연상시킨다.

첫알오름 학살터는 일본군이 1944년 말부터 대정읍 '알뜨르' 지역을 군사요새화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폭탄 창고 터이다. 당시 일본군은 야트막한 첫알오름의 내부를 파내어 폭탄 창고 터로 사용했으며, 폭탄 창고 터가 있는 오름의 정상부에는 두 개의 고각포진지를 구축했다. 이 폭탄 창고 터는 일제가 패망하면서 제주도에 진주한 미군에 의해 폭파됐다. 이때 오름의 절반이 함몰되면서 큰 구덩이가 만들어졌는데 이 구덩이에서 학살이 이루어졌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1947년 3·1집회사건과 4·3사건을 거치면서 구속되었다가 풀려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비검속이 이루어졌다. 이때 일제 식민지 시대 절간고구마 보관하던 창고가 있었는데, 그 창고가 예비검속자들의 수감 장소였다. 당시 창고는 잇대어 2동이 있었는데 두 곳에는 수감된 사람들로 항상 가득 찼다. 이곳에 수감된 이들은 1950년 8월 20일[음력 7월 7일] 새벽 4~5시경 첫알오름에서 처형되었다.



사진 - 첫알오름 학살터

<부록 5> 평화의 순례길 묵상집 : p.6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 묵상말씀 : 히브리서 12:14~15

- 14.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 15.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 찬양 : 주님의 평화가 이곳에 가득하기를



평화의 순례길 지도 (섯알오름 학살터 → 알뜨르비행장 지하병커)

<부록 6> 평화의 순례길 묵상집 : p.7

제4장 -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 알뜨르 비행장 지하벙커

알뜨르 비행장

알뜨르라는 말은 '아래 벌판'이라는 뜻의 제주어이다.

아름다운 단어와 반대로 일본군의 군사시설로 전쟁의 상처가 있는 곳이다.

이 비행장은 1933년도에 불시착륙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처음 건설되었다.

1397년에 이르러 중일전쟁이 본격화 되면서 비행장이 증설되었다.

이렇게 증설된 알뜨르 비행장은 '난징폭격'으로 알려진 도양폭격의 중심기지가 된다.

처음에는 일본 본토의 오무라 항공기지에서 출격한 비행기가

폭격 후 회항중에 유류를 보충할 목적으로 개설되었다.

그러나 전선이 넓어지면서 오무라 항공기지와 규모가 같은 정도로 확장되었다.

이곳에는 프로펠러 비행기부터 다양한 군용기가 사용했던 활주로가 있으며

그 주변에는 엄체호, 고각포 발사대, 통신시설과 지하벙커등이 남아있다.

격납고는 건설된 20개중 19개가 남아있다.



사진 - 알뜨르 비행장 격납고

<부록 7> 평화의 순례길 묵상집 : p.8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 **묵상말씀** : 요한복음 1:1~5, 9

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 **찬양** : 작은 불꽃 하나가



평화의 순례길 지도 (알뜨르비행장 지하병커 → 모슬포항)

<부록 8> 평화의 순례길 묵상집 : p.9

제5장 -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 모슬포항

모슬포항

모슬포는 예부터 ‘모슬개’, 또는 ‘모실개’로 불리었으며 ‘모슬’은 모래의 제주어인 ‘모살’에서 변한 것이고, ‘개’는 포구를 뜻하는 포(浦)로, 모슬은 한자음을 빌어 모슬(慕瑟)로 띄기했다.

모슬포는 제주도의 최남단 지역으로 중국가 가까운 위치에 있고, 태평양에 연결해 있으며, 근처에는 알뜨르 비행장이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군사기지로 활용하기에는 최적지였다.

1918년부터 오사카와 정기항로가 개설되어 있었다. 당시에 제주도민들은 돈벌이를 위해 오사카로 가는 일이 많았다. 게다가 일본은 전쟁이 확산되면서 많은 일본군과 군사기지 건설을 위한 노동력을 제주에 집중시켰다. 이 때문에 제주에는 식량부족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당시 일본은 이런 식량부족현상을 막기 위해 육지로 나갔던 도민들의 귀환을 저지하였고, 제주도민까지도 소개령을 내려 도에서 몰아내었다.

당시 모슬포항에는 ‘오사카-제주-목포’를 운행하던 여객선이 있었는데, 이를 통해 도민들은 고향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고향에 못 돌아오기도 했다.



사진 - 모슬포항

<부록 8> 평화의 순례길 목상집 : p.9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 **묵상말씀** : 시편 30:1~5, 11

1.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2. 여호와 내 하나님이어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나를 고치셨나이다
3.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4. 주의 성도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5. 그의 노엽은 잠간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11.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

■ **찬양** : 작은 불꽃 하나가



평화의 순례길 지도 (모슬포항 → 광선의숙[터])

<부록 9> 평화의 순례길 묵상집 : p.10